

슈먼! 세계로!

국제박람회【교환·파견학생 프로그램 안내】

Guideline for Exchange & Visiting Students



서울여자대학교
SEOUL WOMEN'S UNIVERSITY

Contents

1. 교환학생 선발 후 무엇을 해야 할까 ... 4	7. 국가별 안전정보 44
교환학생 선배들에게 물었습니다! 4	미국 44
교환/파견학생 합격 후 준비할 내용 8	캐나다 52
출국 및 현지 적응 관련 팁 10	일본 54
2. 교환학생 학점인정 안내 19	중국 57
학점인정 절차 19	독일 62
3. 교환학생 학적 안내 21	프랑스 66
4. 교환학생 FAQ 34	스페인 71
5. 유학생할 안전가이드 37	8.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73
유학생할 안전가이드 37	영사서비스지원범위 73
유학생할 안전가이드 - 보이스피싱 39	도난/분실을 당했을 때 73
주의 및 숙지사항 41	부당한 체포/구금을 당했을 때 75
6. 업무별 담당자 및 연락처 43	인질/납치를 당했을 때 75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76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76
	대규모 시위/전쟁이 일어났을 때 77
	테러/폭발이 일어났을 때 77
	마약소지 및 운반을 피하려면 78
	여행 중 사망할 경우 79



1. 교환학생 선발 후 무엇을 해야 할까

교환학생 선배들에게 물었습니다!

Q. “이래서 교환학생 가길 잘했어” 하는 부분이 있다면?

- 6개월이 너무 아쉬워 본교 휴학 후 소와여대에 반년 더 남아있을지 고민할 정도로 아쉽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 일본 Showa Women's University 박지은
- 혹여나 망설이고 있다면, 꼭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짧은 4개월이지만, 이번 봄과 여름은 나의 짧은 인생에서도 유독 빛나는 기억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 일본 Oberlin University 전소영
- 어학연수와 교환학생을 모두 다녀온 입장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국어 전공자라면 꼭 교환학생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국어 실력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 되며 진로가 특히나 해당 언어와 관련이 있는 분이라면 여러 동기부여와 자극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중국 절강외국어대학교 진효진
- 생각만 하지 않고 직접 부딪혀보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해 좀 더 알고 싶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꼭 지원해보셨으면 합니다. – 독일 University of Wuerzburg 권민주
-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교환학생 기간동안 언어실력은 물론 나의 내면이 성장하고 단단해질거예요. 한국에서는 못 느꼈던 여유로움과 자유로움,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 무언가를 해내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맘껏 누리면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독일 University of Wuerzburg 박지원
- 학업적인 부분 외에는,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확실히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즐겁기만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 경험들이 저를 조금씩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귀국 후 많은 방면에서 느꼈습니다. – 미국 Wilson College 조성연

- 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좋았던 일도, 힘들었던 일도 많았던 교환학생이지만, 저는 나쁜 일 또한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뿐만 아니라 넓은 견문, 경험 등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기에 갈 수 있다면 꼭 다녀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 미국 Wilson College 조가윤
- 저는 자신을 바꾸고 싶고, 그럴 의지가 있는 분들이 교환학생을 도전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는 모든 면이 다른 곳에서 저는 저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단순히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은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 Agnes Scott College 심수연
- 교환학생을 지원하기까지 고민도 많이 했고 두려움도 많았으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저에게 많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 미국 Belhaven University 양세빈
- 어떤 학교에 가던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얼마나 마음을 열고 낯선 환경에 녹아드냐에 따라 얻어감의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 미국 Belhaven University 이가은
- 새로운 문화에서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렵고 혼란 기회가 아닌 만큼 얻는 것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인연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미국 Campbellsville university 김보경
- 인생에서 1년 정도는 외국에 살아보는 것 정말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문화들을 많이 접해보고,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보고, 그 다른 문화에 적응해가는 나를 보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미국 Campbellsville university 이가연

- 한국에서 나를 옥죄던 것들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선으로 주변 풍경을, 사람들을, 그리고 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며 배운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해외 거주에 대한 두려움을 이유로 지원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에 도전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이가영
- 해외에서 너무나도 살아보고 싶었던 저에게 이번 교환학생 경험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1년이 되어 주었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각자 교환학생을 결심한 이유와 목표가 다르겠지만, 원하는 바를 잊지 말고 계속 염두에 두고 생활한다면 만족스러운 교환 생활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박서윤
- 교환학생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얻어갈 수 있는 많은 배움과 좋은 경험들 중에서도 정말 값진 배움과 경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많은 서울여대 학우분들이 이 기회를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업과 별개로 타지에서 홀로 살아보는 것은 인생에서도 정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Long Beach 정유정
- 저마다 교환을 가는 이유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모두 후회 없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교환 기간 동안만이라도 도전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인 행복은 본인이 찾아가는 것이니까요.
- 미국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김아영
-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본인이 만족하는 교환학생 생활이 가장 성공적인 교환학생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교환학생 갔으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말들을 많이 접할텐데, 그런 것에 신경쓰지 말고 각자가 목표한 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고 나면 분명 나중에 돌이켜 보았을 때 좋은 추억으로 자리매김해 있을 것입니다. - 미국 North Dakota State University 김시연

- 주변의 소중함과 뭘 좋아하는지, 나의 취향에 대해 좀더 뚜렷하게 기준을 세우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가서 긴시간동안 생활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들을 알게되어서 뿌듯했고 힘들지만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영국 University of Manchester 박주연

-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뭘지, 어떤 것을 보고, 듣고, 하면 행복한지, 어떤 환경과 어떤 요소들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문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며 간접적 세계 여행을 한 기분이었습니다.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Wilmington 이윤주

- 여행과 관련해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는 동안 주변 나라를 많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학기 중간중간 1-2주 정도의 짧은 방학이 2-3번 정도 있고, 1년 파견이신 분들은 3-4개월의 긴 여름방학도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갈 날짜는 충분 하답니다. 저는 좀 소심한 성격이기도 하고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혼자 여행해본 적도 없고 밥도 혼자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 기간동안 혼자 여행을 많이 하다보니 성격도 적극적으로 변하고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볼 수도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만족했던 게 이 부분이라 후에 파견가시는 분들께 꼭 여행을 많이 다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 University of Aix-Marseille III, 불어불문학과 김수연

이 모든 기회가 이제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교환/파견학생 합격 후 준비할 내용

■ 여권 준비

미리 준비해두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했거나 만료가 되었다면 선발이 되자마자 여권부터 준비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은 교환학생이 끝나고 귀국해서도 6개월 이상 남아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은 국가에 따라 귀국 후의 여권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권은 외국에 체류하는 기간 내내 나의 신분증이 되므로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앞으로 모든 서류에 사용하는 영문명은 여권과 동일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 수수료: 55,000원 내외 (유효기간 5년~10년의 복수여권)
- 여권사진: 흰색바탕의 무배경인 3.5 x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사진.
귀가 노출되어야 함.
- 최종여권상 표기된 영문성명을 그대로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음: 예전 여권에서 영문 성명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철자를 바꾸고 싶다고 해도 바꾸기 어려움.

■ 각 대학교별 지원서 작성

본교 선발 완료 후, 국제교류팀에서 각 대학에 선발자들을 Nominate 하면 각 대학의 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지원관련 서류를 안내합니다. 이 안내에 맞춰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입학허가서를 받고 비자 신청

각 대학에서는 지원서류를 받으면 입학허가서를 발급합니다. 국제교류팀으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집으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국가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비자를 신청합니다. 보통 학생비자를 신청하며, 경우에 따라 교환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숙사 신청 및 수강신청

기숙사 신청과 수강신청은 학교별로 시기와 방법이 상이합니다. 지원서류를 작성할 때 함께 작성하는 학교도 있고, 입학허가서를 받은 뒤에 신청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온라인신청도 있고, 이메일이나 fax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떤 대학은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자와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 준비

교환학생이 외국에 갈 때는 보험은 반드시 준비하도록 합니다. 단, 학교에 따라 특정한 보험상품에 무조건 가입하도록 되어있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준비해오도록 하기도 합니다.

■ 항공권 구매

항공권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외국대학에서 지정한) 입국 일정**을 알아야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날짜와 기숙사가 오픈되는 날짜 등이 도착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보통은 입학허가서가 도착하면 항공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 호스트패밀리 또는 친한 친구/선생님께 드릴만한 작은 선물 몇 가지 준비

감사함을 표시할 분들이 있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적인 선물도 의미 있으며 고가의 선물일 필요는 전혀 없으니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의 것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출국 및 현지 적응 관련 팁

■ 짐 싸기

짐을 싸기 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직접 지참해야 하는지 아니면 따로 보낼 것인지 등 여러 가지를 미리 생각해 봅니다.

항공사에서는 비행기 탑승 때 가져갈 수 있는 **수하물의 양을 제한**합니다. **수하물의 개수, 크기, 무게에 대한 규정은 항공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비행기표를 구입할 때 문의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복미 항로의 탑승자들은 수하물 2개와 기내용 휴대 가방 하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내용 가방은 좌석 밑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합니다. 각각의 수하물은 항공사에서 정한 무게나 크기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제한 무게나 크기를 넘어서면 추가 비용을 상당히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한 항공권에 따라 무료 수하물의 갯수가 상이하므로 출국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항공권에 따라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수하물이 없는 경우도 있음)

■ 지참 물품

“옷을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1년 동안이나 미국에 있어야 하니 옷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옷 몇 가지는 입고 있지만 그 외 옷들은 이 작은 기숙사 방에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여기서도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한국 집에서 소포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교환학생 후기>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가져가려는 물건은 본인이 직접 들고 가야 하므로 짐을 가볍고 간단하게 꾸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최근에 미국에 다녀온 선배에게 문의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짐은 일찍 준비하여 규정 무게를 초과하지 않으면서도 규모 있게 챙기고, 꼭 필요한 물품은 빠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모든 물품을 가져갈 수 없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에는 거의 모든 물품을 다양한 가격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작은 물품은 항공편이나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출국

1. 출국 당일 여권이나 입학허가서(-20 등)를 지참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비행기표나 차편, 입학허가서 등 중요한 정보가 있는 서류는 한 폴더 안에 넣어

서 가져가세요. 절대로 화물(check-in baggage)로 부치지 말고 수하물(carry-on baggage)로 기내에 갖고 들어가세요. 대부분의 공항에서는 짐을 찾기 전에 입국심사를 하는데, 입학허가서가 없을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며 부친 짐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는 반드시 지참합니다.

3. 기내에 뽀족한 물건이나 100ml이상의 액체류를 반입하지 않습니다. 공항에서 자신의 짐을 두고 다니면 도난의 위험에 노출됨은 물론, 테러 행위로 오인받을 수도 있으므로 늘 짐을 갖고 다니거나 동행자에게 맡겨놓습니다.
4. 모르는 사람이 부탁하는 짐을 절대로 운반하거나 부쳐주지 않습니다. 세관에서 마약류나 밀수품목이 적발되는 경우 꼼짝없이 공범으로 몰리게 되어 수감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5. 노트북 컴퓨터는 수하물로 갖고 들어갑니다. 단, 보안검색을 할 때마다 가방에서 꺼내어 별도의 박스에 넣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6. 기상상황이나 항공기 정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비행기가 연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여행의 초반부에 비행기가 연착되면 다음에 갈아탈 비행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원래 예정보다 도착이 많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유지가 있을 경우 애초에 예매단계에서 항공편 사이에 최소 3시간 이상의 시간을 두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행기가 연착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갈아탈 비행기(connecting flight)에 탑승할 시간이 아슬아슬한 경우, 공항 직원에게 말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보안검색 및 입국심사에서 맨 앞줄로 보내주거나 하여 시간을 단축시켜주기도 합니다. 운이 좋은 경우 공항 내 카트나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도 합니다.

□ 갈아탈 비행기를 놓쳤을 경우 1) 교환대학의 관계자 2) 픽업을 나오기로 한 사람(따로 있을 경우)에게 연락하여 스케줄을 변동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픽업을 나올 사람이 당황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은 물론, 오리엔테이션을 놓치거나 기숙사 입사가 늦어져도 불이익을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 갈아탈 비행기를 놓쳤을 경우 해당 항공사의 데스크로 찾아가 상황을 설명하면 그쪽 도착지로 가는 다른 항공편을 태워주거나 대기자명단(wait list)에 올려줍니다. 일반석(Economy Class)은 자리가 없는데 이등석(Business Class)이나 일등석(First Class)에 자리가 있는 경우 본인 혹은 부모님의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항공

사에서 또 다른 도시를 경유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는데, 그 경우 그 도시에서도 또 기약 없이 한참을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항공사 직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판단합니다.

- 폭풍우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여행을 취소하거나 하루 정도 공항인근에서 숙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항과의 인접성과 교통편 그리고 호텔 주변의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여의치 않을 때는 공항에서 머무르면서 잠을 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항 직원에게 부탁하면 담요 정도는 빌려주기도 합니다. (항공사별 규정 상이)
- 연착이 되는 경우, 부쳤던 짐은 다음 비행기로 인계가 되었는데, 막상 승객은 터미널을 옮겨다니고 수속을 밟느라 비행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중에 도착 공항에 찾아가서 Baggage Claim을 해야 하므로 Claim Tag를 버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7. 간혹 보안검색이나 입국심사 때 랜덤으로, 혹은 담당직원의 판단에 따라 자리를 옮겨 좀 더 자세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가방을 열어 소지품을 모두 꺼내 검사한다거나, 다른 담당자가 좀 더 심도 있는 질문을 하는 식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조사에 응하면서 여행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묻는 말에만 명료하게 대답하고 조사관에게 불필요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 현지 적응 - 문화충격(Culture Shock)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 새로운 문화권으로 진입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소간의 문화충격(culture shock)을 겪습니다. 문화충격을 느끼는 정도나 기간, 또는 증상은 사람마다 모두 달라서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분이 좋았다가 우울했다하는 사이클을 거치게 되는데, 보통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 향수 (Homesick)
- 학업이나 일에 대한 의욕이나 집중력이 떨어짐
- 폭식, 폭면, 폭음 등
- 새로운 문화 또는 새로운 문화권의 사람들에 대한 거부감
- 원 소속 문화에 대한 과도한 자긍심
- 새로운 문화권의 사람들과 만나기를 두려워하며 회피함
-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도 좌절함

게다가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교환학생으로 외국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동거를 하기 때문에 꼭 외국생활이어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을 처음 해본다는 점에서도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실한 건 **문화충격을 겪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것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교환학생 생활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열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문화충격의 여섯 단계

1. 집을 떠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낌.
2. 외국에 도착한 후에 일명 "Honeymoon Stage"라고 불리는 단계가 찾아옴. 즐겁고 신나는 느낌이 지속되는 가벼운 흥분상태가 됨.
3. 그러다가 처음으로 문화충격의 첫 번째 우울기가 찾아옴. 새로운 문화와, 언어, 학업, 과제, 음식, 교우관계에 적응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됨. 외로움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음.
4.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생활에도 적응이 되면서 안정기가 찾아옴. 언어의 문제가 극복이 아직 안 되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적응이 됨. 다소간의 만족감을 느끼는 시기.
5. 그러다가 가장 심각한 문화충격을 겪는 시기가 찾아옴. 그럭저럭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유학생생활에 고립감과 외로움이 고조되면서 자존감이 낮아짐. 아웃사이더처럼 느끼고 매사가 부정적으로 보임. 새 문화를 싫어하게 되고 사람들이 배타적이라고 느낌. 집에 가고 싶지만, 당장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분노감과 후회감을 느낌.
6. 새로운 문화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이해가 생기면서 평정심을 회복하기 시작함. 친구도 생기기 시작하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다시 찾아보기 시작함. 이 문화권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꼭 외국인들만 느끼는 건 아니라는 점을 깨달음. 새로운 문화에 대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됨. 어떤 부분들은 끝까지 마음에 안 들거나 적응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그 자체를 유학생생활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게 됨.

■ 귀국 후

많은 학생들이 귀국 후에 역문화충격(reverse culture shock)을 겪습니다. 한동안 익숙해졌던 타문화권에서의 생활 때문에 귀국 후에 오히려 이곳에서의 생활이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꽤 흔합니다. 단순하게는 타문화권을 그리워하는 역 향수감을 비롯하여, 취업활동 등에서 비롯된 좌절감 및 우울감, 그리고 달라진 가치관으로 인해 이전에는 없었던 부모와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문화충격의 경우처럼 우울기와 적응기를 반복하면서 적응해가지만, 심각한 경우는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현지 적응 - 몇 가지 조언들 1

- 정보를 수집하세요 - 문화충격은 무지가 동반될 때 그 충격이 더 큼니다. 현지인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관찰하세요. 그리고 교수님이나 친구에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질문하세요.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 적응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입니다.
- 생활반경을 넓히세요 - 낯선 곳에서 교실과 기숙사만 왕복하는 것은 대부분 고립감만 키울 뿐입니다. 지도를 구해 주변을 돌아다녀보세요. 박물관에 가보기도 해보고 공원에서 쉬어보기도 하고, 현지인들이 잘 가는 식당에도 가보세요. 단, 현지인들도 피하는 위험한 시간대나 지역이 있다면 당연히 피합니다.
- 먼저 질문하세요 - 먼저 묻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창피하게 느낄 필요 없이 당당히 질문하세요. 낯선 곳에서 낯선 문화와 처음 접하면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먼저 묻지 않으면 도움도 구할 수 없습니다. 가끔은 이상한 사람들도 만나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한 결과를 낼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끔씩 만나는 이상한 사람은 한국에도 있습니다!
- 조언을 구하세요 - 이곳에 먼저 와서 적응을 끝낸 유학생이 있다면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줄 확률이 높겠지만, 꼭 한국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롤모델을 찾는 것은 유학생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균형 잡힌 생활을 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유학생에게 도움을 구해보세요.
- 행사에 참여하세요 - 유학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최하는 각종 소풍이나 행사에 참여해보세요. 유학생과 교류하는 현지 학생이 동행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 동아리나 모임에 나가세요 - 그 모임의 성격이 스포츠 모임이든, 학구적인 모임이든,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든, 사회봉사 모임이든 상관없습니다. 나와 비슷한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적응이 한결 쉬워집니다. 유학생과 교류

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과 만날 수도 있지만, 이런 모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현지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것도 좋습니다.

- 언어를 빨리 습득하도록 노력하세요 – 그 나라의 언어를 빨리 배울수록 적응하기가 유리합니다. 물론 언어 능력이 다소 떨어져도 사람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 구사력이 떨어지면 교류할 수 있는 사교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빨리 외국어를 습득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세요. 단,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생각보다 빨리 늘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지는 마세요.
- 교수님을 찾아가세요 –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거나 과제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업의 교수님이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연락을 취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세요. 그게 여의치 않으면 유학생 지도를 하는 교수님이나 International Office의 담당 직원을 찾아가세요.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담당 교수에게 알리지 않으면 적응은 물론 성적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교수님이 먼저 면담을 오라고 이야기하거나 어려움에 대해 묻는다면 반드시 응답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학생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수업에 관심이 없다고 간주되거나 큰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보이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본교에 이 상황이 통보되기도 하고 교환학생 조기복귀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 현지 적응 – 몇 가지 조언들 2

- 규칙적으로 생활하세요 – 건강 서적에 나올 법한 이야기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아무래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 몸이 건강해야 세상에도 관심이 가는 법입니다. 운동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취침과 식사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 현지에서 관광을 할 때 낙서를 하지 마세요 – 관광 시에는 공공장소 및 관광지에 낙서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처벌이 무겁습니다.(실제 발생 사례)
- 낯선 사람에게서는 절대 연락처를 공개하지 마세요 – 묵고 있는 호텔이나 교외기숙사 등의 주소를 절대 공개하지 마세요. 그 주소로 찾아와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실제 발생 사례)
- 룸메이트나 방 관련 문제가 생길 때 참고하세요
 - 1) 최대한 대화로 개선 노력하기
 - 2) 기숙사 고충처리 절차 숙지 후 이에 따라 Complaint 접수하기

출국 및 현지 적응 관련 팁

- 3)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편이 지속될 경우 재방문하여 진행상황 확인하기
- 4) 그래도 안 되면 International Office에 도움 요청하기

■ 안전 문제 - 현지의 정보를 우선 습득할 것!

- 어느 도시든지 현지인들도 꺼리는 지역과 시간대에는 외출을 삼갑시다. 현지 대학의 OT때 이런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가급적 혼자 다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실제로 본교 교환학생이 강도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안전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해당대학에 알리십시오. 그 다음에 국제교류팀에 알립니다.
- 비상 Alarm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 VIU 교환학생의 Facebook에서 발췌

경보음을 듣고 있자니 캐나다 기숙사에서 지낼 때는 화재경보기 잘 작동하나 테스트 한다고 점검원들이 오전 내내 모든 기숙사방을 돌아다니며 경보음을 울려 대서 시끄러웠던 기억이 났고 미국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수업 도중에 화재경보음이 울리면 모든 학생들이 일사불란하게 학교 밖으로 대피 훈련을 해서 신기해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워낙 총기사고가 많아서 그런지 수업 도중에 갑자기 또 다른 경보음이 울리면 교실 불을 다 끄고 문도 잠그고 사격 사각지대에 숨어 모두 웅크려 있는 훈련도 했었다. 이런 화재 대피 훈련, 총기사고 대응 훈련 등 안전 훈련만 일년 동안 열 번 정도는 했던 것 같다.

■ 미국 대학생활 Tip

□ 교수

미국에서는 다른 여러 국가와는 달리 학생과 교수 사이에 뚜렷하게 정의된 사회적 행동 강령이 없습니다. 보다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는 교수가 있는 반면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단지 이름으로 호칭되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아래는 교수를 대할 때 참고할 사항들입니다.

- 교수님을 호칭할 때에는 별다른 지시가 없을 경우 '교수님' 또는 '박사님'을 사용합니다. 앞의 용어 외 다른 호칭을 원하면 교수가 먼저 원하는 호칭을 제시할 것입니다.

다. 학생이 교수님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놀라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특히 대학원생에게는 흔한 일입니다. 대학원생은 교수님과 학문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 교수들은 일주일에 며칠은 학생 면담 시간을 마련합니다. 학생은 과제를 의논하고 수업 자료를 검토하며 특정 주제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교수들이 이러한 이유로 학생을 기꺼이 만나주며 사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만남이 과목을 이해하고 교수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교수들은 수업에 잘 참가하고 교수를 방문하는 학생들을 주시합니다. 특정 면담 시간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수가 다른 시간을 할애하여 학생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 학생의 수업 참가 정도가 교수의 학생에 대한 인상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각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의견을 발표하며 질문하고 다른 학생의 의견에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이 단지 주의를 끌기 위한 것이 아니고 수업에 건설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 학부 과정에서는 교수 밑에서 일하는 조교 (Teaching Assistant: TA) 가 일부 또는 전 수업을 강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조교는 학과의 대학원생들입니다. 조교를 '교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들 조교를 'Mr.' 또는 'Ms.'라고 부르거나 조교가 원하면 이름으로 부릅니다.

□ 학생 수칙

많은 대학이 학생이 따라야 하는,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이는 주로 학문적인 정직성과 독창성에 관한 것들입니다. 많은 외국인 학생들은 이 규칙들이 학생 자국에 있는 규정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미국 교육 기관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엄하게 적용합니다. 규정을 몰랐다는 것이 변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정 관계가 다른 국가나 다른 문화에서는 용납된다고 해서 그러한 사실이 미국 대학에서 그 규정 위반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으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대학의 이러한 행동 강령은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이 주제를 다룹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강사나 지도교수, 외국인 학생 담당자에게 문의합니다.

출국 및 현지 적응 관련 팁

□ 부정행위

부정행위는 미국 대학에서 정직성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과제, 퀴즈, 시험에 있어 허락되지 않은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시험에 있어서도 답이나 관련 정보를 받지도, 주지도 말아야 합니다.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시험에 메모나 책을 가져가서는 안 되며 시험 도중 이러한 메모나 책을 봐서도 안 됩니다. 외국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시험 도중 그 외국어로 다른 학생에게 종이나 지우개를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부정행위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명심하고 주의하도록 합니다.

□ 표절

표절도 다른 형태의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표절은 과제를 글로 작성하는데 있어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라도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인용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사용한 것입니다. 표절은 저술, 지식을 훔치는 것으로 생각되고 학문 세계에서는 심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책이나 잡지, 웹사이트, 기록, 영화 등 기타 정보 제공처에 있는 글이나 생각을 인용할 때는 그 인용 출처를 꼭 밝히도록 합니다. 대학에서 인용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는 대학도 많습니다. 표절을 피하기 위하여 인용에 대한 대학 규정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 성적표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교환기간 종료 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성적표를 국제교류팀 사무실로 일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해당 대학의 행정절차 등의 사유로 학기 중 또는 학기 종료 시에 학생이 개별적으로 성적표를 신청하여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외 대학의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필요할 경우 기한 내에 절차를 따라서 성적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교환학생 학적 안내

※ 본 내용은 향후 학칙 변동 사유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가. 시기 : 귀국 후 원본 성적표를 수령한 후 3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환 학기 종료 후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모두 마무리가 되어야 학년 및 학기 진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나. 신청방법

- 1)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환대학의 성적증명서(Transcript) 원본 및 과목별 총 수업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예: 수업시간표, 주수와 수업요일 및 시간 등이 표기된 자료)를 준비하여 국제교류팀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앞서 국제교류팀에 귀국보고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 학점인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학점인정 절차는 본 책자 [교환학생 학점인정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졸업예정자의 경우 국제교류팀과 상의하여 **계절학기 성적확정일까지**는 학점인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인정방법

- 1) 교환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은 학기당 최대 15학점(1년 30학점) 이내에서 인정합니다. 단, 학과별 전공인정 학점에 대하여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불문/독문/중문 : 6학점 이하/학기 • 일문 : 전공 인정 불가
- 2) 총 수업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주당 강의시간(시작시간과 종료시간)과 강의요일, 개강일과 종강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이수과목 중 전공 학점으로의 인정은 해당 전공 학과장(전공책임교수), 교양 선택 학점으로의 인정은 학사지원팀의 확인을 거쳐 인정 가능합니다. (그 외 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되며 이 경우에는 국제교류팀에서 바로 인정처리함)
- 4) 교환학기 동안 해당 대학의 채플을 이수하거나, 별도의 교회에 출석을 한 경우에는 출석을 입증하는 서류(경건회 이수증명서 또는 교회출석증명서 등, 담임목사의 친필 서명, 주보 또는 교회직인날인 필수)를 제출할 경우 우리 대학 경건회 이수로 인정 가능합니다.
※ 기재내용 : 교회출석기간, 교회명, 담임목사명, 교회연락처, 교회직인 등
- 5)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명과 성적은 우리 대학 성적증명서 상에 해당대학 원본성적표에 기재된 그대로 표기가 되며, 본인의 총 평점평균 계산에는 제외됩니다.
※ 총 평점평균의 산출은 본교에서 수강한 과목의 성적만으로 계산
- 6) 해당 과목의 학점수는 해당 대학의 학제 및 주당시간 수 등을 고려하여 우리 대학 학점수로 환산하여 인정합니다.
※ 단, 우리대학의 과목당 학점수가 최대 3학점인 점을 고려하여 과목당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
- 7) 학점인정 문의: 국제교류팀(☎970-5141)

라. 주의사항

- 1) 교환 기간의 매학기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합니다.
- 2) 유학 수속에 수반되는 경비, 여행비, 유학 기간의 체재비 등은 학생이 부담합니다.
- 3) 교환대학의 수학 기간은 1년 이하로 하며 1년을 초과하여 연장이 불가하고, 이 기간 중에는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 졸업이수학점 기준표

1. 일반 학생 이수학점기준표(자유전공 학부, 단과대학 자유전공, 외국인 입학생 해당없음)

구 분		심화전공	복수전공	비 고	
총 이수학점		130학점 이상			
졸업 이수 요건	경건회	6개 학기 필수이수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필수 이수		※2010학년부터 2014학년까지 필수 이수 ※2015학년 이후 입학생은 해당 없음	
	공인영어 성적	①공인토의성적 750점(또는 그에 준하는 공인 영어성적)이상을 2학년 말까지 제출 또는 ②<대학영어(읽기쓰기)>(3학점) 이수		※2015학년부터 2018학년까지 해당 ※2019학년 입학생부터 해당 없음	
교양 필수	2014학년까지 (9학점)	기독교개론(2) 바름인성교육 I, II, III, (각1) 영어 I, II(각2)			
	2015~ 2016학번 (7학점)	기독교개론(2) 바름인성교육 I, II, III, (각1) 대학영어(듣기말하기)(2)			
	2017~ 2019학번 (10학점)	기독교개론(2) 바름인성교육 I, II, III, (각1) 대학영어(듣기말하기)(2) 소프트웨어와창의적사고(3)			
	2020학년부터 (10학점)	기독교개론(2) 바름인성교육(1),바름종합실계프로젝트(2) 대학영어(듣기말하기)(2) 소프트웨어와창의적사고(3)			
교양 선택	2023학번까지	5개[주제중심]영역+4개[학문중심]영역 =9개영역 중 5개영역 최소 1과목씩 이수		※2016학번까지 : 30학점 이상 ※2017학번부터 : 27학점 이상	
	2024학번부터	[기초교양] 최소 1과목 외 [학문중심] 4개영역별 최소 1과목씩 이수			
제1전공		54학점 이상 (전필포함)	42학점 이상 (전필포함)	※전공심화 69학점 이수 해당 학과(전공) 디지털미디어학과,정보보호학과,사이버보안전공, 개인정보보호전공,소프트웨어융합학과	
복수전공		일반전공			
		연계융합전공			
		42학점 이상 (복필포함)	36학점 이상 (연계융합전공 복필포함)		
자율선택사항 (일반선택)		39학점	9학점	15학점	교양, 전공 등의 최소요구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총 졸업이수학점(130학점)에서 부족한 학점은 이 수구분에 관계없이 원하는 교양, 전공, 타전공 과 목을 자유롭게 이수하면 됨
선택 사항	부전공	21학점 이상 (부전공필수 포함)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만 신청하여 이수	
	교직	22학점 이상		교직으로 선발된 학생 이수 ※교과과정년도에 따라 이수학점 차이가 있음 로 반드시 기초교육원 교학실(☎5976)로 문의 바람	
	평생교육	30학점 이상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 이수 ※교과과정년도에 따라 이수학점 차이가 있음 로 반드시 교양대학 교학팀(☎5976)으로 문의	

2. 자유전공학부 입학생 이수학점기준표

구 분		심화전공	복수전공		비 고
총 이수학점		130학점 이상			
졸업 이수 요건	경건회	6개 학기 필수이수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필수 이수			※2010학번부터 2014학번까지 필수 이수 ※2015학번 이후 입학생은 해당 없음
	공인영어 성적	①공인토익성적 750점(또는 그에 준하는 공인 영어성적)이상을 2학년 말까지 제출 또는 ②<대학영어(읽기쓰기)>(3학점) 이수			※2015학번부터 2018학번까지 해당 ※2019학번 입학생부터 해당 없음
교양 필수	2014학번까지 (9학점)	기독교개론(2) 바름인성교육Ⅰ,Ⅱ,Ⅲ,(각1) 영어Ⅰ,Ⅲ(각2)			※<글쓰기>(3) 필수이수 2014학번 : 교양필수 9학점 및 <글쓰기>(3) 2015~2016학번 : 교양필수 7학점 및 <글쓰기>(3) 2017학번부터 : 교양필수 10학점 및 <글쓰기>(3) ※외국인 전형 입학생(2023학번부터) <대학영어(듣기말하기)>(2), <소프트웨어와창의적사고>(3) 이수 의무 없음
	2015~ 2016학번 (7학점)	기독교개론(2) 바름인성교육Ⅰ,Ⅱ,Ⅲ,(각1) 대학영어(듣기말하기)(2)			
	2017~ 2019학번 (10학점)	기독교개론(2) 바름인성교육Ⅰ,Ⅱ,Ⅲ,(각1) 대학영어(듣기말하기)(2) 소프트웨어와창의적사고(3)			
	2020학번부터 (10학점)	기독교개론(2) 바름인성교육(1),바름종합설계프로젝트(2) 대학영어(듣기말하기)(2) 소프트웨어와창의적사고(3)			
교양 선택	2023학번까지	5개[주제중심]영역+4개[학문중심]영역 =9개영역 중 5개영역 최소 1과목씩 이수			※교양선택 이수학점 2010~2013학번 : 30학점 이상 2016학번까지 : <글쓰기>(3) 포함 30학점 이상 2017학번부터 : <글쓰기>(3) 포함 27학점 이상
	2024학번부터	[기초교양] 최소 1과목 외 [학문중심] 4개영역별 최소 1과목씩 이수			※외국인 입학생 2022학번까지 : <글쓰기>(3) 포함 27학점 이상 2023학번부터 : <글쓰기>(3) 포함 32학점 이상
제1전공		54학점 이상 (전필포함)	42학점 이상 (전필포함)		※전공심화 69학점 이수 해당 학과(전공) 디지털미디어학과,정보보호학과,사이버보안전공, 개인정보보호전공,소프트웨어융합학과
복수전공		-	일반전공 42학점 이상 (복필포함)	연계융합전공 36학점 이상 (연계융합전공 복필포함)	
자유선택사항 (일반선택)		39학점	9학점	15학점	교양, 전공 등의 최소요구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총 졸업이수학점(130학점)에서 부족한 학점은 이수구 분에 관계없이 원하는 교양, 전공, 타전공 과목을 자유롭게 이수하면 됨
선택 사항	부전공	21학점 이상 (부전공필수 포함)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만 신청하여 이수
	교직	22학점 이상			교직으로 선발된 학생 이수 ※교과과정년도에 따라 이수학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기초교육원 교학실(☎5976)로 문의 바람
	평생교육	30학점 이상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 이수 ※교과과정년도에 따라 이수학점 차이가 있으므 로 반드시 교양대학 교학팀(☎5976)으로 문의

3. 단과대학 자유전공 입학생 이수학점기준표

구 분		심화전공	복수전공		비 고
총 이수학점		130학점 이상			
교양필수 (11학점)		기독교개론(2) 바롬인성교육(1)바롬종합설계프로젝트(2) 대학영어(듣기말하기)(2) 소프트웨어와창의적사고(3) 열린전공세미나(1)			
교양선택 (26학점 이상)		[기초교양] 최소 1과목 외 [학문중심] 4개영역별 최소 1과목씩 이수			
제1전공		54학점 이상 (전필포함)	42학점 이상 (전필포함)		*전공심화 69학점 이수 해당 학과(전공) 디지털미디어학과,정보보호학과,사이버보안전공, 개인정보보호전공,소프트웨어융합학과
복수전공		-	일반전공 42학점 이상 (복필포함)	연계융합전공 36학점 이상 (연계융합전공 복필포함)	
자유선택사항 (일반선택)		39학점	9학점	15학점	교양, 전공 등의 최소요구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총 졸업이수학점(130학점)에서 부족한 학점은 이수구분에 관계없이 원하는 교양, 전공, 타전공 과목을 자유롭게 이수하면 됨
선택 사항	부전공	21학점 이상 (부전공필수 포함)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만 신청하여 이수	
	교직	22학점 이상		교직으로 선발된 학생 이수 *교과과정년도에 따라 이수학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기초교육원 교학실(☎5976)로 문의 바람	
	평생교육	30학점 이상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 이수 *교과과정년도에 따라 이수학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교양대학 교학팀(☎5976)으로 문의	

4. 외국인 전형 입학생 이수학점기준표

구분		심화전공	복수전공		비고
총 이수학점		130학점 이상			
졸업이수요건		〈경건회〉 6개 학기 필수이수			
교양 필수	2022학번까지 (10학점)	기독교개론(2) 바름인성교육(1), 바름종합설계프로젝트(2) 대학영어(듣기말하기)(2) 소프트웨어와창의적사고(3)		※자유전공학부 입학생 <글쓰기>(3) 필수이수	
	2023학번부터 (5학점)	기독교개론(2) 바름인성교육(1), 바름종합설계프로젝트(2)			
교양 선택	2023학번까지	5개[주제중심]영역+4개[학문중심]영역 =9개영역 중 5개영역 최소 1과목씩 이수		※교양선택 이수학점 2022학번까지 : 27학점 이상 2023학번부터 : 32학점 이상	
	2024학번부터	[기초교양] 최소 1과목 외 [학문중심] 4개영역별 최소 1과목씩 이수		※자유전공학부 입학생 2022학번까지 : <글쓰기>(3) 포함 27학점 이상 2023학번부터 : <글쓰기>(3) 포함 32학점 이상	
제1전공		54학점 이상 (전필포함)	42학점 이상 (전필포함)		※전공심화 69학점 이수 해당 학과(전공) 디지털미디어학과,정보보호학과,사이버보안전공, 개인정보보호전공,소프트웨어융합학과
복수전공		-	일반전공	연계융합전공	
			42학점 이상 (복필포함)	36학점 이상 (연계융합전공 복필포함)	
자율선택사항 (일반선택)		39학점	9학점	15학점	교양, 전공 등의 최소요구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 총 졸업이수학점(130학점)에서 부족한 학점은 이수구 분에 관계없이 원하는 교양, 전공, 타전공 과목을 자유롭게 이수하면 됨
선택 사항	부전공	21학점 이상 (부전공필수 포함)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만 신청하여 이수
	교직	22학점 이상			교직으로 선발된 학생 이수 ※교과과정년도에 따라 이수학점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기초교육원 교학실(☎5976)로 문의 바람
	평생교육	30학점 이상			평생교육사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 이수 ※교과과정년도에 따라 이수학점 차이가 있으므 로 반드시 교양대학 교학팀(☎5976)으로 문의

■ 졸업

가. 시기: 전기 졸업식은 매년 2월, 후기 졸업식은 매년 8월 실시

나. 대상: 8개 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졸업요건을 갖춘 학생

다. 확인사항

- 1) 졸업예정자는 졸업직전학기 수강신청 전에 종합정보시스템의 <학점취득현황> 메뉴를 참고하여 졸업학점 및 세부졸업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2)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해당 학점을 이수할 때까지 졸업이 유보됩니다.

라.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정규 8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총 이수학점과 마지막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합산하여 130학점 이상이면 자동 발급됩니다.

마. 주의사항

- 1) 졸업예정자는 졸업직전학기 수강신청 전에 종합정보시스템의 <학점취득현황>을 확인하고, 학과사무실에서 학업성적사정표를 배부 받아 졸업학적 및 세부졸업요건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2) 8개 정규학기 이상 등록을 하고도 졸업요건에 미달된 경우에는 졸업이 불가합니다.
- 3) 복수전공이나 제3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해당학점을 이수할 때까지 졸업이 불가합니다.
- 4) 전공심화과정과 복수전공을 동시에 이수하는 경우 복수전공을 포기하면 졸업요건이 되므로 졸업하고자 한다면 졸업직전학기 복수/부전공 신청기간에 취소신청 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 전공을 5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2017학번 이후 소프트웨어학과, 정보보호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전공생은 69학점 이상 이수 해야함)
- 5) 복수전공과 제3전공을 동시에 이수하는 경우 제3전공을 포기하면 졸업요건이 되므로 졸업하고자 한다면 졸업직전학기 복수/부전공 신청기간에 취소신청 하여야 합니다.
- 6) 전기졸업(2월)과 후기졸업(8월) 대상자는 겨울 계절학과와 여름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하며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이 가능합니다.
- 7) 평생교육원의 ICT강좌 및 어린이영어지도사 과정의 정규학기(봄학기, 가을학기)에 이수한 과목에 대한 성적은 여름 및 겨울 계절학기로 성적을 인정받아 졸업학점에 포함하여 졸업사정회에 상정이 가능하나, 여름학기, 겨울학기에 이수한 과정의 성적은 성적 입력이 졸업사정회 이후 처리되므로 당해 학기 졸업에 필요한 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아 졸업이 불가합니다.
※ 졸업사정 이후 학점인정을 받은 성적이 성적표에 계절학기 성적으로 기재되고 졸업학점에 포함되더라도 졸업사정 시 졸업불가자로 판정되어 졸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음 정규학기에 추가학기로 등록(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 학기생은 학점 당 등록이 가능하며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8) 교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신청하여 성적입력이 완료된 경우

졸업사정을 처리하므로 전기졸업(2월) 예정자는 1월22일 전까지, 후기졸업(8월) 예정자는 7월22일 전까지 성적입력이 완료되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마감 이후 학점인정을 받은 성적이 성적표에 정규학기 성적으로 기재되고 졸업학점에 포함되더라도 졸업사정 시 졸업불가자로 판정되어 졸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음 정규학기에 추가 학기 등록(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납부)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 학기생은 학점 당 등록이 가능하며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조기졸업

가. 개요 6학기 또는 7학기 만에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 초 신청기간에 조기졸업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신청기간 매 학기 초(1학기는 3월 중, 2학기는 9월 중)

- 다. 요건 ① 조기졸업 신청서 제출
② 6, 7개 학기 이상 등록
③ 졸업요건 충족
④ 평점평균 4.0 이상

라. 주의사항

- 1) 조기졸업을 신청하였으나 요건 미 충족 학생은 8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해야 합니다.
- 2) 6학기 조기졸업을 신청하였으나 미충족으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학기에 7학기 조기졸업 신청 가능합니다.
- 3) 편입생은 조기졸업이 불가능합니다.
- 4)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유보가 불가능합니다.

■ 복수/부전공

가. 개요: 제1전공 외에 다른 전공을 최대 2개 더 선택하여 여러개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입니다.

나. 신청방법: 정해진 신청 및 취소 기간 내 종합정보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

다. 신청시기: 1학기는 1월 중, 2학기는 7월 중 (자세한 일정은 학사력과 홈페이지 '학사' 공지사항 참고)

라. 신청대상: 1학년 2학기부터(재학생만 가능)

※복수전공/부전공 신청 및 취소는 반드시 학기별 정해진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함

마. 이수방법

- 1) 복수전공 이수학점은 해당 전공 필수과목 포함 42학점(연계융합전공은 36학점) 이상, 부전공 이수학점은 부전공 필수과목 포함 21학점 이상입니다.
- 2) 이수중인 전공과 복수(부)전공 과목 중 동일 유사 과목은 최대 9(6)학점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3) 교환대학에서 인정 받은 교과목은 중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바. 주의사항

- 1) 복수/부전공의 변경은 재학 중 각각 1회만 가능합니다.
예) A전공으로 복수전공 신청→취소→B전공으로 복수전공 신청→취소까지 가능 (변경 1회)
A전공으로 부전공 신청→취소→B전공으로 부전공 신청→취소까지 가능 (변경 1회)
- 2) 복수/부전공 승인 시 이수구분 변경은 학적변동 학기 개강 후 3주간 순차 변경처리 됩니다.
- 3) 편입생의 전적학교 인정 교과목은 복수전공으로 인정 불가능합니다.
- 4) 복수/부전공 이수 중 중도포기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되어 졸업이수학점에 포함 됩니다.
- 5) 복수전공이나 심화전공이 졸업 필수조건이므로 복수전공을 하지 않으면 심화전공을 해야 합니다.
- 6) 복수전공은 2개까지, 부전공은 1개 전공만 이수 가능합니다.
- 7) 복수전공을 취소하고 부전공으로 신청 가능하나 당해 학기에 취소 및 신청은 불가합니다.
- 8) 교환학생 파견 중에도 복수/부전공 신청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신청 시에는 반드시 학과(전공)별 제출서류, 면접 절차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A

Q1) 기존학과에서 다른 학과 전과 승인이 난 경우, 기존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복수전공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복수전공 신청 및 이수에 전과로 인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Q2) A 복수전공 ▶ 취소 ▶ B 복수전공 또는 B 부전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복수/부전공 '변경' 은 재학 중 각각 1회만 가능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Q3) 복수전공 신청조건 중 미리 기초과목을 들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타과 학생은 들을 수 없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A) 선수과목이 있거나 수강대상 제한이 걸려있을 때는 학과에 수강허가를 요청하여 학과의 승인을 받을 경우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Q4) 복수전공 승인 전에 들었던 과목도 복수전공 신청 후 승인받은 뒤 복수전공 이수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복수전공으로 승인되면 해당 학과의 수업은 모두 복필 혹은 복선으로 인정됩니다. 단, 연계융합전공의 경우 해당 학년도 교과과정에 포함된 경우에 한합니다.

Q4) 복수전공과 부전공 이수학점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A)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제1전공 전필포함 42학점 이상 그리고 복수전공 복필포함 42학점 이상(연계융합전공의 경우 36학점 이상)입니다. 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심화전공으로 제1전공 54학점 이상, 부전공 21학점 이상 이수하시면 됩니다. 부전공은 반드시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은 가능합니다.

Q5)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두 가지 전공 모두 각 학과별로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복수전공이나 심화전공은 졸업 필수 요건이며,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제1전공과 복수전공 모두 각각의 졸업요건을 만족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 연계융합전공

가. 개요: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학과(전공)가 연합하여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나. 전공: 박물관학, 국제학, 문예창작, 청소년학, 글로벌문화사업·MICE, 도시환경예술디자인, 디지털융합경영, 바이오인포매틱스, 스마트농업공학, 예술심리치료 등 연계융합전공이 있습니다.

- 바이오화장품공학은 신청 학년에 제한이 있으며, 데이터과학, 기업보안융합은 신규 신청이 불가하니 복수전공 신청 시 반드시 공지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다. 이수방법

- 1) 제1전공으로는 이수할 수 없고, 복수전공으로 신청하여 이수 가능합니다. (부전공 이수도 불가)
- 2) 승인기준은 전공별로 다르며 신청기간 전에 홈페이지 공지됩니다.
- 3) 연계융합전공은 소속 학과 전공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은 최대 9학점까지 중복인정 가능합니다.

라. 주의사항

- 1) 연계융합전공을 이수할 경우 전공필수 포함 36학점 이상 이수하면 됩니다.

■ 학생설계전공(복수전공) 이수

가. 개요: 학생설계전공은 기존의 전공이나 연계융합전공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본인의 진로목표 혹은 관심분야에 따라 교육과정을 스스로 설계하여 이수하는 전공입니다.

나. 신청: 2학년 1학기(3학기)부터 4학년 1학기(7학기)까지

다. 이수방법

- 1) 학생설계전공의 이수학점은 42학점 이상입니다.

- 2) 학생설계전공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교수님을 섭외하여 나의 전공을 포함하여 총 60학점 이상의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전공을 이수합니다.

라. 주의사항

- 1) 매년 3월과 9월 중 홈페이지에 학생설계전공 모집공고를 안내하니 꼭 확인하세요.

■ 마이크로전공 이수

가. 개요: 마이크로전공은 사회수요에 맞춘 기술이나 실제적인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역량기반 교육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실무형 단기 교육과정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수단으로 학사학위와 별개로 미니 학위를 주는 제도입니다.

나. 신청자격: 3학기 ~7학기 재학생이며, 별도의 승인기준 및 절차는 없습니다.

다. 이수방법

- 1) 이수학점 : 12~15학점
- 2) 관심있는 마이크로전공을 신청한 후 해당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수강합니다.
- 3) 교육과정별로 제시하는 이수학점 수를 모두 이수하여야 합니다.
- 4) 단기에 이수해야 학습효과가 좋으므로 가급적 1년 이내 이수를 권장합니다.
- 5) 이수 신청 전 이수한 과목은 마이크로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합니다.
- 6) 이수자가 소속된 전공의 과목은 해당 전공의 이수구분에 따라 '전필' 또는 '전선'으로 표기되고, 타 전공과목은 '일선' 으로 표기됩니다.

라. 이수인정

- 1) 이수인정 기준을 충족하여 이수를 완료하면 마이크로전공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 2) 이수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습니다.
- 3) 졸업요건을 충족했지만, 마이크로전공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졸업유보 신청을 한 후 이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계절학기

가. 개요: 여름 및 겨울방학 중에 개설되는 학기를 말합니다.

나. 수강대상: 재학생(휴학생 수강불가)

※ 교환파견 학생도 교환학기에 이어지는 계절학기 수강이 가능하나, 계절학기 과목은 대부분 대면으로 개설되므로 계절학기 기간 중 국내에서 수강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절학기 수강신청학점은 6학점 이내입니다. (단, 사회봉사학점은 별도 합산)

라. 수강신청 및 중도포기 기간 이후에는 수강신청을 취소할 수 없으며, 중도포기 시점에 따라 수강료 환불금액이 변경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

가. 교내 장학생의 공통자격 : 직전학기 이수학점 14학점 이상(단, 8학기생의 경우 10학점 이상), 평점평균 2.0/4.5 이상인 경우 (계절학기 취득성적 제외)

나. 신청시기 : 교내(3~6월, 9~12월),

교외(장학재단에서 추천 요청시 장학 공지사항에 수시로 공고함)

◆ 장학금별 신청기간은 장학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주요 장학금 종류		수혜 자격	수혜 내용	세부 사항
교환학생 장학금		국제교류단에서 실시하는 교환학생 선발시험에 응시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학생 중에서 국제교류단장이 추천한 학생	수업료의 80%	※교환 직전학기 성적으로 교환1·2학기 모두 적용 ※교환대학/본교에 모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한함
계속 장학금 주)	바름	신입생 장학금 (수시 및 정시 모집)	등록금 전액	※직전학기 10학점이상, (백분위)80점 이상 ※교환2학기 수혜는 교환1학기 성적기준
	한샘	신입생 장학금 (수시 및 정시 모집)	수업료의 70%	
	아름	실기(실기우수자전형) 수석 합격자	수업료의 70%	
	모녀	어머니가 본교 학부 졸업생인 자	수업료의 35%	
	보훈	보훈법이 정하는 보훈대상자 또는 직계자녀	등록금 전액	
국가장학금		직전학기 10학점, 2.60이상	소득분위별 차등지급	(신청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교환 직전학기 성적으로 교환1·2학기 모두 적용

다. 주요 안내

- 1) 주) 교환학기별 성적이 나오는데로 학점인정 취득한 경우, 장학금 수혜 받을 수 있음 (즉, 교환1학기 종료 후에도 학점인정처리 완료해야 함)
- 2) 교환학기 종료후 차기학기의 교내장학금 신청 자격은 직전학기 14학점 이상(단, 8학기생의 경우 10학점 이상), 평점평균 2.0/4.5 이상을 취득해야 함
- 3) 등록금성 장학금의 지급은 학생에게 유리한 장학금을 지급함 : (예) 바름과 교환학생이 대상일 경우 바름(등록금 전액)장학금을 지급함
- 4) 위 장학금 외의 안내는 홈페이지 대학생활 장학을 참고

◆ 교환학생(파견학생/복수학위 포함) 장학금 변경 안내

변경 전	변경 후	시행 시기
최종 합격자는 교환학생 장학금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수혜 (단, 파견교 등록금 면제 대학 합격자의 경우에는 교환학생 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	최종 합격자는 교환학생 장학금 (해당학기 등록금 80%) 수혜 (단, 파견교 등록금 면제 대학 합격자의 경우에는 교환학생 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	2024학년도 2학기 교환학생 파견자부터 적용
파견 첫 학기가 8학기 이내의 최종 합격자 대상 교환학생 장학금 지급 (9학기가 파견 첫 학기일 경우 장학금 혜택 없음, 단, 8~9학기 파견 시 2개 학기 수혜 가능)	파견 첫 학기가 8학기 이내의 최종 합격자 대상 교환학생 장학금 지급 (9학기가 파견 첫 학기일 경우, 장학금 혜택 없음, 단, 8~9학기 파견 시 8학기(1개 학기) 수혜 가능)	2024학년도 2학기 교환학생 파견자부터 적용
직전학기 14학점 이상, 평점평균 2.0/4.5 이상 이수	직전학기 14학점 이상 (단, 8학기생의 경우 10학점), 평점평균 2.0/4.5 이상 이수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교환학생 선발 가산점 제도 개편 안내

1. 교환학생 선발 가산점 제도

가. 가산점 부여 항목 및 배점

구분	가산점 부여 항목	배점
1	영어강의 수강 단, 대학영어(읽기쓰기), 멀티미디어문예영어 등 영어학습 목적영어강의, 영어영문학과 영어강의, 학점교류 수강과목 제외	교양선택과목 중 영어강의 : 과목당 1점 전공에 개설된 영어강의 : 과목당 1점
2	바름인성교육 수강 성적 우수자	바름인성교육 성적 상위 25% 시 : 1점
3	슈버디로서 활동한 자	활동 인증자 : 1점/학기
4	한국어도우미로서 활동한 자	20시간 이상 활동자 : 1점/학기
5	장학생 대상자	바름 I/바름 II/한샘/아름/다움/가운장학금 수혜자 : 2점
6	영어스피치대회 수상자	대상, 우수상, 특별상 수상자 : 1점
7	슈야멘토로서 활동한 자	기초소양교육+고교연계프로그램 활동 합산최소 15시간 이상 활동하여 정회원으로 활동 인증을 받은 자 : 1점
8	해외봉사 참여자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해외봉사단 및 협의회 대학 자체개발 프로그램 해외봉사 참여자 : 1점
9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자	사회봉사 I~IV 중 2과목 이상 이수자 : 1점
10	슈니커즈로서 활동한 자	슈니커즈 수료 인증자 : 1점/학기
11	슈타터로서 활동한 자	슈타터 수료 인증자 : 1점/학기

나. 가산점 총점

최대 5점, 항목당 최대 3점을 초과할 수 없음

2. 시행 시기

2025학년도 2학기 파견 예정 교환학생 심사부터 적용



4. 교환학생 FAQ

FAQ

Q. 휴학생도 교환학생 지원이 가능한가요?

A. 휴학생도 교환학생 지원은 가능하나, 교환 및 파견학기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복학 신청이 필수입니다.

Q. 교환 및 파견 기간 중 중도포기 및 기간연장이 가능한가요?

A. 본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교내 추천자로 선발된 이후 참가 취소하거나 또는 파견 후 중도포기 시에는 향후 국제교류단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참가에 제한이 있으며 기존 신청기간 연장은 절대 불가합니다.

Q. 추천서는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A. 추천서는 해당 교환 및 파견프로그램 면접위원을 제외한 본교 교수님이 작성 가능합니다.

Q. 해외대학에서 요구하는 재정증명서가 무엇인가요?

A. 재정증명서라 함은 학비 및 생활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해외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이며 주거래은행에서 본인 혹은 재정보증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영문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잔고증명서 최소금액은 교환 및 파견기간(1개 학기 혹은 2개학기) 해당교의 학비 및 생활비를 상회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Q. 교환 및 파견프로그램 참가후기 열람이 가능한가요?

A. 국제교류단 홈페이지(www.swu.ac.kr/ir) - 한국인재학생 - 프로그램참가후기 게시판에서 교환 및 파견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의 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학점인정은 언제 받으면 되나요?

A. 기본적으로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와서 원본 성적표를 수령한 후 3주 이내에 학점인정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무리 늦어도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 국제교류팀에서 학점인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적표와 수업시간/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만약 교환대학의 학사일정 때문에 성적표가 다음 학기 개강 전 까지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성적표 도착 후 1주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성적표 도착은 국제교류팀 게시판에 공지합니다). 만약 현지에서의 여행 등으

로 인해 귀국이 늦어져 개강 전에 학점인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나 다음 학기에 휴학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대리인(본교생 친구 등)을 통해서라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학점인정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식절차입니다.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점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라며, 학점인정 신청에 앞서 교환학생들은 반드시 국제교류팀에 귀국보고서 제출(E-mail 송부, 학점인정서류 제출시 출력물로도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학점인정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Q. 교환학생 기간중에 학기별 최소 신청 학점 조건이 있나요?

A. 무조건 학기별 최소 10학점 이상은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 10학점은 해당 대학에서의 수강신청학점수가 아니라 본교에서 학점인정을 위하여 환산처리했을 때 10학점을 넘겨 인정받을 수 있도록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교환학생으로 나가는 학기가 9학기 이상인 학생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10학점 미만으로 인정받게 될 경우 학칙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도 학점 인정이 가능한가요?

A. 온라인 강의가 수강 불가한 것은 아니나 이후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업을 몇 시간 이상 온라인 수강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적표에 정식 성적으로 표기 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Q. 교환학생을 다녀온 후 바로 졸업이 가능한가요?

A. 본인이 졸업요건을 갖추었고 학점인정을 마쳤다면 바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단, 학점인정을 전기졸업(2월) 예정자는 1월22일 전까지, 후기졸업(8월)예정자는 7월22일 전까지 학점인정을 마쳐야 합니다.(p.27 졸업참조) 귀국 후 바로 졸업을 하고 싶은 학생은 미리 국제교류팀에 졸업의사(E-mail송부) 및 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단, 국가별 학사일정의 차이로 인해 졸업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점인정 승인을 받아 졸업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다음 학기에 등록(수강신청과 등록금납부)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교환학생 종료 후 바로 졸업을 하는 학생은 대부분 5월경에 학기가 끝나는 영어권 교환학생입니다.

Q. 교환학생 기간 중 교회를 출석해서 경건회로 인정받으려면 얼마나 다녀야 하나요?

A. 횟수가 아닌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학기가 진행되는 기간만큼(15주) 교회를 출석하여야 하며, 본교 경건회를 수강할 때 결석할 수 있는 횟수와는 관계없습니다.

Q. 교환학생 파견 기간 동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본교 및 파견교에 수업료를 납부하는 교환학생 장학금 대상자는 본교 수업료의 80%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수혜하게 되므로 수업료의 80%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바롬장학금 예외). 교환학생 장학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본교에만 등록금을 납부하는 교환학생의 경우) 교내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환 2번째 학기에 교내장학금을 받기 위하여 교환 1번째 학기 성적을 인정 신청해야 하며 (E-mail로 학점인정신청서, 성적표 스캔본, 수업시간 증빙자료 등을 보내야 함) 이 경우 14학점 이상으로 인정받아야 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교환학생 파견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본교 등록금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교환학생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수업료의 80%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교환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해외대학에서 발급하는 등록금 영수증을 교환기간 중에 미리 신청해서 받아두고 이후 부모님께 잘 전달하셔야 합니다. 해외대학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등록금 납입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관련 근거: 국세청 홈페이지>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됩니다(대학원은 본인만 해당).

Q. 교환학생 장학금을 받으면 등록금 납부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교환학생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등록금 고지서를 확인하여 수업료의 80%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은 개강 후 미등록 제적 처리 대상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등록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회비는 선택 사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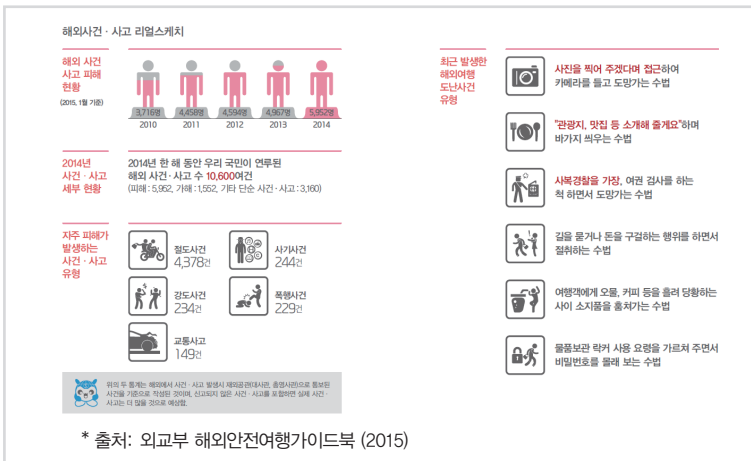
5. 유학생할 안전가이드

유학생할 안전가이드

■ 해외 사건/사고 통계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으로 접수된 한국인의 사건·사고 건수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이 중 대다수는 **절도 사건**이므로 특별히 소지품 관리에 주의.



■ 해외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법

절도 사건이 일어났다면 일단 여권과 신분증 등이 없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카드회사로 즉시 연락해서 중지하도록 하고,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최대한 빨리 관할 대사관(영사관)에 연락하도록 합니다. 그 외 강력사건 등이 일어났다면 역시 가족과 대사관에 알리도록 합니다.

□ 영사콜센터: 긴급한 사건·사고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외교통상부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서비스. 그외 여권,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 접수 등 각종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

국내	02) 3210-0404
해외	현지 국제전화코드 + 800-2100-0404(무료)
	현지 국제전화코드 + 822-3210-0404(유료)

■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분실, 도난 등의 사고로 궁핍한 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할 경우, 국내 지인이 외교통상부 계좌로 입금하면 현지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해외여행객에게 긴급 경비를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이며, 현지 대사관/총영사관이나 영사콜센터로 신청합니다.

□ 지원 한도: 최고 3,000불 (미화 기준)

□ 외교통상부 계좌번호: 농협 1310-01-001-001 or 수협 070-13-004113

■ 수면제를 탄 음료 이용 범죄 주의

근래에 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 중에 수면제를 탄 음료를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택시운전사 등) 뿐만 아니라 친분을 이미 쌓은 사람인 경우에도 항상 조심해야 하며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건네 받은 음료(밀봉이 되어 있는 음료도 안전하지 않음)는 내가 직접 구매 현장을 목격하지 않는 한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 다음 사건은 실제로 최근에 서울여대 교환학생이 겪은 사례입니다.

해외로 파견된 교환학생 A양은 얼마 전 실수로 택시에 핸드폰을 두고 내렸다. 당장 핸드폰을 정지했지만, 아쉽게도 분실된 핸드폰을 찾을 수는 없었다. 마침 코앞에 시험도 닳쳤고 바쁜 일들이 있어서 다시 핸드폰을 개통할 수가 없었다. 시험이 끝난 후, 예전부터 친구와 계획했던 대로 그 나라의 명소를 방문하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떠나기 전, 집에 전화를 해 어머니께 행선지를 밝히고 당장 핸드폰이 없어서 며칠간 연락이 잘 안되겠지만 친구와 함께 가는 여행이니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두었다.

며칠 후, A양의 부모에게 익명의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전화를 한 남자는 A양을 납치했으니 현금 5천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한다. 이 남자는 A양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A양의 이름을 비롯한 신상정보와 여행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 전화 한쪽에서는 '엄마 살려줘!'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다급해진 A양의 부모가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지만, 남자는 '시간을 지체하면 A양의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며 협박을 한다. 그리고 입금할 시간과 계좌를 알려주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다.

A양의 부모는 A양과 연락이 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를 한지도 사흘이 지났으므로 국제교류팀과 경찰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한다. 경찰에서는 수사관 한 명을 파견해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남긴다. 그러나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있는 단서가 없으므로 돌아간다. 국제교류팀에서는 A양의 소재를 알아보기 위해 A양과 함께 여행을 갔다는 친구의 연락처를 수소문한다. 그러나 방학을 이용해 같은 학교로 파견된 다른 학생들 역시 대부분 여행 중이어서 A양의 소재나 A양이 누구와 여행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어렵사리 연락된 한 학생으로부터, 한국에서 과 친구가 한 명 오기로 되어있었다는 소문을 듣고 과대표 학생에게 연락하여 그 학년의 모든 학생들에게 모두 연락을 돌려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연락이 닿는 학생 중에서는 A양이 머무는 국가에 간 학생이 아무도 없다.

결국 국제교류팀에서는 그쪽 대학에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얻어 A양이 머무는 기숙사에 전화를 한다. A양이 제출한 외출계를 보니 오늘이 돌아오기로 한 날이다. A양이 돌아오거든 연락을 달라고 부탁을 해놓는다.

3시간 뒤, 아무것도 모르는 A양에게서 전화가 온다. 현지 친구와 여행을 잘 하고 다녀 왔으며 방금 기숙사에 돌아왔다는 것. A양의 부모는 보이스피싱에 낚이기 일보직전에 A양과 연락이 되어 피해를 면하게 된다.

■ 참고사항

- 납치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아니면 말고'식의 전화가 많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어쩌다 진짜로 그 사람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전화 받는 사람이 정말로 크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핸드폰 분실이나 이메일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근황, 그리고 이동 동선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보이스피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한국의 가족이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을 할 때는 혼자보다는 두 명 이상이 함께 다닌다.
 - 동행자의 연락처를 가족에게 꼭 남겨놓는다.
 - 본국의 가족과 수시로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을 꼭 갖추어 놓는다.
 - 개인정보(핸드폰번호 및 이메일주소)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핸드폰을 분실했을 경우 가족에게 특별히 수시로 연락한다.
 - 지금껏 나온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가족들에게 인지시킨다.

주의 및 속지사항

■ 대한민국인/서울여대인으로서의 책임감

- 교환학생은 항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울여대 학생으로서의 꼬리표를 달고 다니게 됩니다. 본인의 자세나 태도, 생활모습 하나하나가 외국인의 눈에는 고소란히 우리나라와 우리학교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로 남게 됨을 기억하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책임감 있게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같은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끼리는 서로 도와가며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을 가르거나 왕따를 시키는 등의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경우 이후 후배들이 동일한 대학에 파견되었을 경우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실제 사례: 본교생들끼리 왕따를 시켰던 적이 있는 학교에서 이후 후배들이 파견되었을 때 서울여대생들은 항상 저런 식이라는 오해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음)

■ 등록금 납부 영수증/증명서 발급

- 교환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교에 납부한 등록금이 아니므로 본교에서는 영수증을 절대 발급할 수 없습니다. ★교환대학에서 발급하는 등록금 영수증을 반드시 교환기간중에 받아 오셔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연말정산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님 회사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 국내 대학 등록금에 한하여 지원이 된다는 이유로,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교환학생장학금으로 전액 감면을 받으면서도 본교 등록금 납부 영수증/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본교에서는 절대 영수증이나 확인서 발급을 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8학기를 초과하여 교환/파견을 나가게 되는 학생의 수강신청 및 등록금

- 본교에서는 8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9학기째부터는 수강신청을 10학점미만으로 해도 되며 이때에는 수강신청을 한 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을 일부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본교에서 수학을 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교환/파견을 나가게 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8학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10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금 일부 납부는 적용되지 않으며 본교에 납부를 해야 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상 8학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환/파견학생으로 선발이 될 수 없던 것을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허용하게 된 것이므로, 이미 졸업이수 학점을 채웠거나 마지막 학기에는 여행을 포함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수강신청을 1~2과목만 하는 것은 승인되지 않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교환기간 중 휴학/조기종료/연장

- 교환기간 중에는 규정상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 교환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단순변심, 예상과 다른 해외 생활에서 오는 실망감, 부적응 등)로 인한 조기종료는 절대 불가합니다. 교환학생은 두 학교간의 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므로 개인적인 연수나 여행과는 다르며, 본인에게 부여된 교환학생 TO가 선발되지 못한 학생에게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소중한 기회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종료는 그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판단되어 국제교류 단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한 학기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으나 두 학기로 연장은 절대 불가합니다. (3개학기 이상으로의 연장 또한 학칙에 위배되어 절대 불가함)

■ 개인 및 부모님 연락처 업데이트

- 교환/파견 기간중에 학사 문제나 공지사항 안내 등으로 인하여 본교에서 급하게 학생에게 연락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므로 개인 연락처(이메일주소, 현지핸드폰 번호, 카톡주소 등)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교류팀으로 바로 알려주시고 본교 학적시스템(학적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주소로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음)에도 반영하여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하지 않아서 메일이 반송되거나 전화연락이 안됨으로 인하여 주요 공지사항을 놓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셔야 합니다.
- 현지에서 학생 본인에게 사건/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제교류팀에서는 부모님에게 바로 연락을 취해야 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동역서에 기재한 부모님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국제교류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 현지에서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하였으나, 학적시스템상의 집 연락처 및 교환학생 지원서 상에 기재한 부모님 연락처가 변경되어 연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음)



6. 업무별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자 소개

■ 국제교류팀: 교환학생 담당부서 (<http://www.swu.ac.kr/ir>)

이름 / 직위	담당	사무실 전화	이메일
류부열 팀장	학점인정	02) 970-5141	byryoo@swu.ac.kr
정현경 과장	Outbound 교환학생	02) 970-5143	dannykim@swu.ac.kr
장혜진 직원	Inbound 교환학생	02) 970-5142	china@swu.ac.kr

■ 학사지원팀: 학적, 졸업, 휴/복학

이름 / 직위	담당	사무실 전화	이메일
이기택 부장	전공과목	02) 970-5022	alssaman@swu.ac.kr
황철민 부장	학적	02) 970-5025	smileman@swu.ac.kr
박소영 부장	졸업	02-970-5021	syp@swu.ac.kr
최유정 직원	교양과목	02) 970-5032	chocoj@swu.ac.kr

■ 학생지원팀: 장학, 학자금대출

이름 / 직위	담당	사무실 전화	이메일
송가영 계장	교내장학금, 국가장학금	02) 970-5063	swuhs@swu.ac.kr
권아름 직원	교외장학금, 학자금대출	02) 970-5062	ahrm1205@swu.ac.kr
이세영 직원	국가근로장학금, 교내인턴장학금	02) 970-5066	swuhs@swu.ac.kr

- Arlington Hospital
 - 전화번호: 703-558-5000(Main No.) 703-558-6161(Emergency)
- CVS 약국
 - Dupont Circle 202-785-1466(6-7 Dupont Circle, NW)
 - 14번가 202-628-0720(1199 Vermont Ave., NW)
 - Tanleytown 202-537-1587(4555 Wisconsin Ave., NW)
- **의료비용** : 한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의 의료비용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의료보험이 없는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경우, 별도의 치료 없이 진료만 하는 데에도 보통 \$100 이상의 비용이 청구됩니다(워싱턴 D.C 지역의 경우). 만약 보험 없이 치료 및 수술을 받게 될 경우에는, 몇 천불에서 몇 만 불까지도 올라갑니다.
 - 미국의 병원이용은 예약 시스템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응급상황(emergency)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예약을 먼저 하고 병원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응급상황(emergency)이라 할지라도 앰블런스에 실려 응급실로 이송되는 경우가 아니면, 병원에서 수 시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보통이므로, 병원 이용 시 한국과 다소 다른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한국의 병원 시스템과는 다르게 미국에는 Hospital 과 Clinic 및 Urgent Care가 있습니다. Clinic 과 Urgent Care 시스템은 Hospital 보다 더 저렴한 편입니다.
 - 미국에서 약 구입은 주로 cvs, giant, safeway, walgreen 등 대형 슈퍼마켓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약과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over the counter) 약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상기 대형 슈퍼마켓에도 약사가 있기 때문에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약사가 약을 조제해 줍니다. 오버더카운터(over the counter) 약들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으로, 주로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알러지약 등이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미국의 병원 이용 시스템이 위와 같으므로, 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여행객들은 반드시 여행자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험 없이 사고를 당해 병원 이용을 하게 될 경우 병원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반드시 여행자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좋으며, 병원마다 취급하는 보험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 구입 시 이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 대사관 연락처

- **주미대사관** : 2450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8
 - 전화번호: (202) 939-5600(대사관 대표전화)
- **근무시간 안내**
 - 09:00am~5:00pm(월~금)
 - 우리나라 4대 국경일 및 미국 공휴일 휴관

마. 총영사관 연락처

- 총영사관 주소: 232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 총영대사관 대표이메일 주소: consular_usa@mofa.go.kr
- 대표전화번호: 202-939-5653
- 영사긴급전화번호: 202-641-8746
- 근무시간: 9:30am~5:00pm (월~금)

사건·사고

가. 사건·사고 현황

□ 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미국 본토는 서쪽으로는 태평양에서 동쪽으로는 대서양까지 이어지는 대륙이며, 이 외에도 북극해에 인접한 알래스카, 남태평양에 위치한 하와이, 괌,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등에 걸쳐 다양한 기후에 노출되어 있음에 따라, 지역별, 시기별로 태풍, 지진, 토네이도, 홍수 등 다양한 천재지변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서양에 인접한 미 동남부 지역(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조지아 등)에는 매년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허리케인 피해가능성이 있으며, 로키 산맥 동쪽의 중서부 지역(콜로라도, 캔자스, 오클라호마, 텍사스), 남부 지역(테네시, 미주리, 알칸소, 앨라배마, 미시시피)에는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토네이도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국인들의 주요 거주 지역이며 관광지이기도한 캘리포니아 주는 간혹 지진 또는 대형 화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 9.11 사태 이후 국토안보부 창설 및 각종 국내·외 대테러 태세 강화로 테러 위협에 대한 경계는 매우 삼엄한 상황인 바, 테러 공격의 주요 대상으로 간주되는 공항, 항만, 대도시 공공시설, 주요 정부 청사 등 출입 시에는 각종 보안 및 검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싱턴DC 지역]

- 주미국 대사관 관할지역인 D.C, 메릴랜드, 버지니아는 백악관, 국회의사당 등 연방정부 건물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9.11 사태 이후 테러 대비에 대한 경계가 잘 정착되고 있으며, 정부 건물에는 모두 보안 검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버지니아 내륙지역으로 근래 잦은 토네이도의 발생으로 이재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한인 밀집지역은 아직 피해가 없었습니다.

□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피해 가능성 등 치안상태

- 미국은 연방, 주(州), 시 별로 사법질서가 매우 정착된 나라이기는 하지만, 개인 총기 소유가 합법화되어 있는 관계로 각종 총기 사건이 빈번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

주 또는 여행 지역의 치안 상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주로,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요 대도시(LA, 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는 특히 범죄피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도시의 위험 지역 등을 사전 인지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며, 각 경찰국마다 한인 통역, 번역 안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테네시 주변 아나톨리아, 애리조나와 조지아, 버지니아 주도 실탄이 장착된 총기를 술집에서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여타 18개 주는 술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총기류 소지가 가능합니다.

[워싱턴DC 지역]

- 워싱턴 DC는 크게 NW(북서), SW(남서), NE(동북), SE(동남) 행정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NW가 가장 안전한 편이며 SE는 각종 범죄 등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 버지니아 주와 메릴랜드 주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며,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이 신속 출동하므로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경찰국마다 한인통역, 번역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나. 사건·사고의 유형

- 미국 방문 또는 이민자들을 상대로 언어소통의 문제점을 이용 운전면허취득, 비자변경 등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바, 신중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 대처: 지역 한인회, 봉사센터,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 한국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하고 음주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영주권자라도 3회 적발 시 추방) ⇒ 대처: 입주 시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한 귀가가 최선이며, 차량에는 어떠한 술병도 있어서는 안 되면, 만약 술을 구입하여 이동시는 차량 트렁크에 넣어 이동하여야 합니다.
 - 음주운전 알코올 효용 농도 0.08%
- 운전 중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경찰의 제지를 받을 시, 차에서 내리거나 경찰에게 항의하는 행동을 할 경우, 현장 체포당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함) ⇒ 대처: 경찰의 지시 없이는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두 손은 운전대에 위치시키고, 경찰의 요구사항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면 됩니다.

다. 자연재해

- 과거 여름홍수와 겨울태풍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유의해야 할 지역

[시애틀]

- 워싱턴주(2012. 12월부터), 알래스카 주(2015. 2월부터), 오리건주(2015. 7월부터)에서는 마리화나(대마초) 구입과 흡연이 합법화되었으나, 우리 국내법상 해외에서의 대마초 구입, 흡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호기심 차원에서 또는 우연히 대마초(마리화나)를 흡연할 경우 체내에 장시간 축적되어 향후 소변 또는 모발 검사 시 적발되어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애틀 시내 주요 관광명소인 China Town, Pioneer Square, Safeco Field(시애틀 매리너스 홈구장) 일대는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자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니, 혼자 다니거나 일몰 후에 다니는 것은 자제하기 바랍니다.
- 한인 밀집 지역인 페더럴웨이(Federal Way), 린우드(Lynnwood) 등에서 고가의 가방 등 귀중품을 두고 주차하는 아시아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차량 절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차량 안에 귀중품을 두고 주차하지 마시고, 트렁크에 보관하거나 직접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량 털이와 파손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깐이라도 차에 귀중품을 두고 내리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주차장이나 길거리에 차를 세워 놓고 쇼핑, 식사를 하러 가는 경우, 반드시 실내를 점검하여 눈에 띄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핸드백, 휴대폰, 배낭 등 귀중품뿐만 아니라, 신발, 옷가지도 절도범의 목표물이기 때문에 물건을 항상 소지하도록 하고, 부피가 큰 물건 등은 호텔에 두고 나오거나, 트렁크에 보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트렁크를 열고 절도하는 사례도 증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현지문화

가. 일반문화

- 관공서나 국립박물관 등을 방문할 때 대부분의 경우 보안 체크를 하게 됩니다. 보안 담당관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할 경우 보안검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보안 담당관의 지시에 잘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관공서에서의 일 처리는 한국에 비해 매우 느린 편이므로 양국의 업무처리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화 태도: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화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대화내용 중 특정종교나 소수민족, 인종이나, 성별과 관계된 차별성 또는 동물 비하 발언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므로 비록 농담이라도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초면에 나이나 가족사항 등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제스처: 대화 중 손 전체가 아닌 특정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공장소 등에서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팔로 입을 가리는 것이 좋으며, 재채기를 하고 나면 "Excuse me"라고 말해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직접 대화하거나 전화 통화지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이름과 직책 등을 물어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 팁 문화

- 미국에서의 모든 서비스 이용에는 팁을 지불해야 합니다. 식당과 미용실, 택시 등 이용 시 팁은 비용의 15~20% 정도 지불합니다. 호텔이나 공항에서 짐을 이동해 주는 경우에는 보통 가방 당 \$1 정도 지불하면 됩니다.
- 일반적인 식당인 경우 총 음식 값의 15%~20%가 적당합니다.
- 택시와 호텔 이용 시 가방 개수에 따라 팁 필요(가방 1개당 1불)합니다.

기타

가. 날씨

- 봄, 가을 5°~18°, 여름 22°~33°, 겨울 -1°~7°

나. 교통정보

□ 대중교통(워싱턴 지역)

[버스(Metrobus)]

- 청, 적, 백색의 시내버스가 325개의 노선을 운행합니다. 워싱턴 시내의 기본요금은 \$1,800이며, SmarTrip card를 이용할 시에는 \$1,600이고, <http://www.wmata.com/bus/>에서 버스노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차(Amtrak)]

- 미국 전역을 운행하는 철도망인 Amtrak은 워싱턴 도심 교통서비스가 닿지 않는 외곽 지역을 여행하는데 가장 유용한 대중 교통망입니다.
- 워싱턴 D.C.에서 동부지역 주요 도시인 필라델피아, 뉴욕, 보스턴 등을 여행할 때도 도심에서 가까운 편리성과 안락함때문에 비행기 대신 열차를 활용하는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의: 800-872-7245/ www.amtrak.com)

[전철]

- 5개 노선의 지하철이 오전 5시(월-금) 및 오전 7시(토-일부터 자정(일-목) 및 오전 3시(금-토) 운행합니다.
- 노선별로 색깔 구분이 되어 있으며, 각종 안내지도에 지하철역은 "M"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승차요금은 역구내에 계시돼 있는데 최소 \$1.70에서 최고 \$5.75까지 승차거리 및 승차 시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러시아워 등 시간대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택시]

-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요금 외에 운행구간에 따라 거리별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승차 또는 출발 전에 택시에 부착되어있는 구간 안내도를 보고 목적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구간별 요금과 함께 출퇴근 시간대 할증 및 2인 이상 승차시 승객 1인당 \$1.00, 수화물 1개당 \$.50 등의 요금도 추가로 징수합니다.

[국내선항공]

- 9.11 테러 이후 항공기 탑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이 강화되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국제선은 최소한 출발 2시간 반 전, 미국 국내선은 출발 2시간 전에 미리 탑승 수속을 마쳐야 합니다.
- 휴대용 라이터, 문구용 칼 등 항공기 탑승 시 휴대가 금지된 품목을 사전에 잘 점검할 것이 요망됩니다.
- 미국 도착 시 입국심사 후 미 이민국 직원이 여권에 붙여주는 체류 허가서(-94)는 미국 내 합법적 체류 자격을 증명해 주는 중요한 문서인 만큼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출국 시 제시해야 합니다.

[자가용 운전의 경우]

- 'STOP' 표지판이 보이면 주행하는 차량이 없더라도 반드시 차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까지 정지를 하여야 하며 좌우를 2-3초간 살펴본 후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 Yield Sign에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다른 차가 진입을 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언제라도 정지를 할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 노란 색깔의 School Bus가 Stop 판을 옆으로 펴놓고 빨간 불을 켜 채 정차해 있을 경우에는 절대 추월하지 말고 차를 세운 후 기다려야 하며, 이는 반대편 차선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4Way Stop" 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무조건 정지하여야 하며, 정차 후에는 주행 방향에 상관없이 먼저 와서 정차한 차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교통 상황에 따라 항상 우회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No Turn On Red"라고 표시된 곳에서는 반드시 신호등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비상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고 지나갈 경우에는 우측 차선으로 차를 붙여 세워야 하며, 다른 차선 방향으로 이동 중일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서행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차를 세울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 도로교통

- 운전 시, 항상 운전면허증은 소지하고, 차량등록증과 보험서류는 차량에 비치해 놓

고 있어야 합니다. 국제면허증의 경우 한국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함께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앞좌석에 앉은 사람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 스쿨버스가 '정지 신호등' 을 깜빡이고 있을 때는 양방향 차량 모두 정지해야 합니다.
- 워싱턴DC 부근 지역에는 출퇴근 시간에 출입이 제한되거나 2명이상이 탄 차량 (HOV: high-occupancy vehicle)만 통행이 허용되는 도로가 많으므로 항상 도로 표지판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 앰블런스, 소방차,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릴 때 모든 차는 도로변으로 차를 정차시키고 지나갈 때까지 정차시켜야 합니다.

□ 차량운전 문화

- "STOP"
 - 표지판 신호등과는 달리 "stop"이라고 쓰여 있는 팔각형의 빨간색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2-3초 간 정지하여 좌우를 살펴본 후 출발하여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경찰에게 티켓을 가장 많이 받는 경우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스쿨버스(노란색)
 - 스쿨버스의 정차시 버스 운전자 옆으로 "stop" 사인이 펼쳐지면, 좌우 모든 차들은 정지해야 합니다. 중앙선에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일 경우에는 반대편 차선의 차들도 정지해야 합니다.
- 인도변 보도블록이 빨간색으로 표시 돼 있는 경우는 소방차 주차구역이므로 주차 불가합니다.
- 코인 주차 구역은 보통 15분에 25Cent를 지불해야 주차 가능합니다.
 - 도심의 경우 7.5분에 25Cent

다. 기타

□ 한국과의 시차

- 14시간 차이(예를 들어 한국이 오후 2시 이면, 미국이 새벽 0시)
 - 단, 2011년 썸머타임 기간인 3.13부터 11.6 사이에는 13시간 차이
 - * 미주 전지역 : 매년 3월 2번째 일요일부터 11월 첫 번째 일요일까지 썸머타임 실시

□ 전력사용 현황

- 110V (* plug adapter를 이용하면 한국제품 사용가능)

□ 해당 국가에 대한 사전정보 취득

- 주미대사관 홈페이지: www.koreaembassy.org
- 미 연방정부 정보제공 홈페이지: www.usa.gov
- 여행전문사이트: www.lonelyplanet.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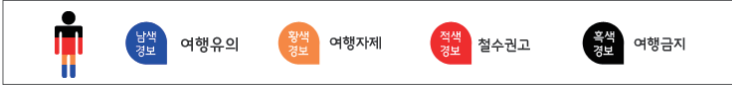
□ 기타

- 미국 전역 새벽2시 이후 음주불가

캐나다(Canada) : 북미



상세여행경보



비지정

현지연락처

가. 긴급연락처

- 화재신고 911
- 범죄신고 911
- 응급의료 911
- 전화번호 안내 411

나. 대사관연락처

- 대사관 주소 : 150 Botelet Street, Ottawa, ON, K1N 5A6
- 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 <http://can-ottawa.mofa.go.kr>
- 대사관 대표이메일 주소 : canada@mofa.go.kr
- 대표전화번호 : +1-613-244-5010 ○ 영사 핫라인 : +1-613-447-4276
- 근무시간 : 09:00-12:00, 13:30-17:00 (토, 일, 국경일 휴무)

사건·사고

- 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
 - 캐나다의 경우 태풍·지진·홍수 등 천재지변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전쟁이나 내란의 가능성도 낮아 여행하기에 비교적 안전한 나라입니다. 밴쿠버 등 캐나다 서부지역은 다양한 문화를 기반으로 다민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서 특별한 사회불안 요소도 없습니다.
 - 다만, 캐나다 서부는 미국 서부 주요 도시와 인접해 있고, 캐나다가 미국의 강력한 우방국 중의 하나이며, 아프가니스탄에 파병 중인 점 등을 감안, 일각에서는 런던에서와 유사한 형태의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 살인, 강도, 납치, 절도, 사기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상태
 - 밴쿠버 지역의 치안상태는 미국 대도시와 비교할 때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나, 토론토·몬트리올 등 캐나다의 다른 대도시와 같이 절도·강도·교통사고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

고, 여행객 들을 노리는 절도·소매치기 사건 등도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관광명소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주차하면서 밖에서 가방 등 소지품이 보이게 하면 차 유리창을 깨서 가방을 훔쳐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여권·귀중품이 들어 있는 가방은 차내에 두지 말고 눈에 띄지 않도록 트렁크에 보관하거나 직접 휴대해야 합니다.
- 친구가 송금하려 하니 은행계좌를 잠시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거나, 종고차 매매대금으로 부도수표를 입금시켜 자동차를 빼앗아가는 사기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런 사건은 동정심 많은 유학생이나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낯선 사람에게 절대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계좌를 통해 거래대금 입금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상대방이 개인수표로 입금하였는지 또는 Certified된 수표나 Money Order로 입금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입국 시 유의사항

-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지난 '94년부터 "관광·방문목적"으로 입국하는 내국민에 대해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행객들은 사전에 비자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반드시 eTA(전자여행허가)를 사전에 온라인의 해당사이트에서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항 등 국경에서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의 철저한 입국심사가 이루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 ※ 밴쿠버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더라도(밴쿠버를 경유, 토론토나 멕시코로 가는 경우 등) 일단 밴쿠버에서 입국심사를 받게 됨
- 상당수 우리나라 여행객들은 자유로이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알고 사전 충분한 대비없이 밴쿠버를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려다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 "순수한 관광·방문 목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밴쿠버공항에서 입국거부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최근 자국으로 불법 이민자의 증가, 테러 위협 대처 등을 이유로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에 대해 철저한 입국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 목적에 의심이 생길 경우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하여 장시간 조사를 실시하고, 관광·방문에 대한 뚜렷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가차 없이 입국거부 판정을 내리고 입국 시 이용했던 항공편으로 귀국시키고 있습니다.
 - 입국심사를 받기 전에 약간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친지 방문의 경우에는 친지와외의 관계연락처 등에 대하여, 관광의 경우에는 관광일정여행경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한국어 통역원의 도움을 받아 입국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일본(Japan) : 아시아/태평양



상세여행경보



철수권고(일부): 후쿠시마 원전주변 반경 30km이내 지역 및 일본정부 지정 피난지시 구역

현지연락처

가. 긴급연락처

- 경찰 : 110
- 화재 : 119
- 해상 사건사고 : 118
- 전화번호 안내 : 104
- 도쿄도보건의료정보센터 : 03-5285-8181
(한국어, 영어, 중국어, 타이어, 스페인어로 근처의 진료가능한 의료기관 안내)
시간 : 토, 일, 공휴일을 포함한 9:00~20:00까지 안내

나. 대사관 연락처

1. 대사관

- 주소 : 06-0047 東京都港南麻布1-2-5
- 전화 : (81-3)3452-7611/9, 팩스 : (81-3)3452-7420
- 긴급전화(휴일) : (81-3)6400-0736

2. 대사관 영사과

- 주소 : 106-0047 東京都港南麻布 1-7-32
- 전화 : (81-3)3455-2601~3, 팩스 : (81-3) 3455-2018
- 긴급전화(휴일) : (81-90)1693-5773

3. 한국 문화원

- 주소 : 160-0004 東京都新宿四谷 4-4-10
- 전화 : (81-3)3357-5970, 팩스 : (81-3)3357-6074

사건·사고

가. 사건·사고 현황

□ 사례비 미끼 마약류 운반 주의

국제 마약조직들이 일본 내 사정을 모르는 한국인들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마약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1) 무료 해외여행 등의 선심성 관광을 제의하면서 여행용 가방 등의 운반을 요청받아 적발된 경우

사례 2) 사례비를 지불한다고 하며 해외시설 견학을 겸한 관광에 동행시킨 후 기념선물이라며 건네받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된 경우

※ 일본에서는 각성제단속법 및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마약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중벌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적발 시 국가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절도 사건은 일본 전체 형법범 중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바, 특히 우리 국민 관광객이 일본 여행시 날치기나 소매치기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일본은 지진, 태풍,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국민 또는 관광객은 일본 체류 또는 여행시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진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10개 항목

- ① 우선, 자신의 안전을 확보: 테이블이나 책상 아래에 몸을 숨기고, 가구 등 넘어지기 쉬운 것은 전도 방지를 해 둔다.
- ② 불의 관리는 재빠르고 확실하게 실시: 사용중의 불은 모두 소리를 내어 확실하게 꺼두고, 가스 원전, 콘센트 등도 침착하게 처리해 둔다.
- ③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 피난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구는 반드시 열어두며, 특히 맨션 등 중고층 주택에서 확실하게 실시한다.
- ④ 불이 나면 재빨리 소화: 소화기의 준비나 체크는 물론, 평소에 소화훈련을 실시해 둔다.
- ⑤ 회중전등은 반드시 신변 가까이: 야간 등의 정전이나 피난 준비를 위해, 신변 주변의 요소요소마다 회중전등을 준비해 둔다.
- ⑥ 산사태, 벼랑 무너짐, 쓰나미에 주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재빨리 피난하여 구조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⑦ 피난은 도보로, 짐은 최소한의 것만: 비상소지품은 평소 비상용 배낭 등에 넣어서 챙겨두며, 피난할 때에는 엘리베이터나 자동차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⑧ 벽근처, 벼랑, 강, 좁은 노지 등은 멀리: 피난할 때에는 블록, 문기둥, 자동판매기 등 쓰러지기 쉬운것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⑨ 바른 정보로 신중하고 침착하게 행동: 휴대 라디오를 준비해두고, 유언비어나 소문에 매혹되지 않도록 항상 올바른 정보하에 행동한다.
- ⑩ 피난시에는 모두가 서로 협력: 노인이나 신체 부자유, 부상을 당한 사람 등에 말을 걸어 모두가 서로 협력, 초기 소화 등에도 모두가 협력하여 행동한다.

현지문화

가. 팀문화

일본은 팀문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산 시에 한국의 경우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이지만, 일본의 경우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을 표시해 놓은 점포가 많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가. 교통정보

- 일본의 대중교통 요금은 만12세 이상은 대인요금, 6~11세까지 소인 요금, 1~5세까지는 유아 요금, 1세 미만의 경우 무료입니다. 유아는 대인 및 소인과 동반시 두명까지 무료이며, 세명째부터 소인요금이 적용됩니다. 소인요금은 성인요금의 약 절반에 해당합니다.
- 전철 및 지하철
JR, 도쿄메트로, 도에이(都)선 등 수십개의 노선이 있으며, 운영하는 회사에 따라 환승 시에도 운임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JR은 대인요금 130엔부터, 도쿄메트로는 160엔부터, 도에이(都)는 170엔부터 운임이 시작되고 구간에 따라 증가합니다.
- 버스
도쿄 일반버스는 대인요금 200엔으로 균일하며, 학으로 시작하는 버스일 경우 170엔, 마을버스인 액세스 라인버스는 100엔입니다.
- 택시
2km까지 기본요금 710엔이며, 그후 288m마다 90엔씩 가산됩니다. 밤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 야간할증이 적용되어 20%추가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China) : 아시아/태평양



상세여행정보



여행유의(일부): 중국·북한 국경지역 (단둥시, 관전만족자치현, 집안시, 백산시, 임강시, 장백조선족자치현, 안도현, 화룡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여행자제(일부): 티벳, 신장자치구

현지연락처

가. 긴급연락처

- 교통사고 신고 122 · 긴급 구조 신고 120
- 범죄 신고 110 · 화재 신고 119

나. 관광통역서비스

- 114 한국어 생활정보 안내서비스 : 중국 114 또는 116114

다. 의료기관 연락처

- 베이징(北京) : 중일우호병원(中日友好医院)
- 전화: (86-10) 8420-5288

라. 대사관 연락처

- 대사관 주소 : 中國 北京市 朝陽區 亮馬橋 第三使館區 東方東路 20號
(郵政編碼 100600)
(No.20 Dongfangdong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 대사관 홈페이지 주소 : <http://chn.mofa.go.kr>
- 대표전화번호 : +86-10-8531-0700
- 야간당직 : +86-139-1101-9526, +86-186-1177-3874
(평일 18시 ~익일 09시, 공휴일)
- 근무시간 :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09:00-12:00, 오후 13:30-18:00

마. 총영사관 연락처

- 총영사관 주소 : 中国 北京市 朝阳区 亮马桥 北小街7号 (邮政编码100600)
(No. 7 Beixiaoje Liangmaqiao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 총영사관 홈페이지 주소 : <http://chn.mofa.go.kr>
- 총영사관 대표이메일 주소 : chinaconsul@mofa.go.kr, chinavisa@mofa.go.kr
- 총영사관 전화번호 : (86-10) 8532-0404
- 총영사관 FAX : (86-10) 6532-3891
- 근무시간 : -아국인 민원업무 : 월요일~금요일, 09:00-17:00
-외국인 민원업무 : 월요일~금요일, 09:00-12:00, 13:30-17:00

사건·사고

[절도 피해]

- 주거 침입 절도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문단속 등 철저한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명 관광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소매치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귀중품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거나 휴대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 2015. 4. 29. 북경 거주 A씨는 새벽 자택에서 잠든 사이 도둑이 무단 침입하여 노트북 등 한화 약 4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절취 당함.
예 2) 2015. 4. 20. 북경 사진 박람회를 관람 중이던 B씨는 고가의 카메라와 지갑이 들어있던 가방을 절취 당함.

[폭행 및 상해]

- 피해 항목 중 폭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업 파트너와 관계 불화, 현지인과의 사소한 마찰, 과음으로 인한 폭언 및 실수 등으로 폭행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현지인의 문화, 습관 등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고, 과음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1) 2015. 7. 7. 북경시 클럽에서 음주 중이던 C씨는 다른 중국인 일행과 시비가 발생 상대방 중국인 6명으로부터 집단 폭행 당함.
예 2) 2015. 7. 29. 북경시 거주하는 D씨는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다는데 시비가 되어 중국인 2명으로부터 폭행 당함.
예 3) 2016. 3. 6. 북경시 거주하는 E씨는 집안 내부 공사 소음으로 시비가 되어 아래층 중국인으로부터 폭행 당함.

[보이스피싱 사기]

- 최근 중국 내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그 수법 또한 진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 용의자들이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검거 또한 쉽지 않은 만큼 예방이 최선입니다. 관공서, 금융기관, 지인 사칭 전화, 악성코드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발송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 2015. 10. 23. 북경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F씨는 동생 항공료를 지불하라는 전화를 받고 한화 200만원을 송금하여 편취 당함.

[교통사고]

· 중국의 신호체계가 우리나라와 상이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이 동시에 허용되는 교차로가 많다보니 횡단보도에서 좌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삼륜차, 자전거, 전동자전거, 오토바이, 보행자가 뒤섞여 이동하고,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 및 보험사에 신고하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채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 1) 2015. 11. 11. 북경에 거주하던 G씨는 대로에서 보행 중, 지나가던 삼륜차와 충돌하는 뺑소니 사고 피해를 당함.

예 2) 2016. 7. 2. 청해성에 관광차 방문한 H씨는 자전거를 타던 중 관광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함.

[종교문제]

· 중국의 종교는 전통적으로 불교, 도교, 이슬람교가 있으며 섬서성 시안 지역은 중국 도교의 본산입니다. ※ 중국에서는 종교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외국인인 중국인에 대해 선교 활동 하는 것이나 허가된 지역 외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관계당국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발 시 통상 강제 추방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입·출국]

· 중국 베이징 수도공항 변방(입국 심사대)에서는 타국에서 출발하여 베이징으로 입국한 외국인인 72시간 이내에 제3국으로 출국할 경우, 그 신청인에 한하여 72시간 이내의 무비자 체류 허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심사대에서는 신청인의 72시간 이내의 제3국 행 항공권을 확인 후 실제 베이징에서 체류 가능한 시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허가받은 체류 가능 시간 동안 베이징 외에 중국 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불가하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베이징 출입경 변방 검사총참(北京出入境边防检查总站, T:+86-10-5810-5100)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중국 내 각 지역에 따라 해당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중국 입국 시 사전에 해당 지역 소재 공항 심사대를 통해 미리 알아보아야 합니다.
- 항공편의 예약은 출국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편을 이용할 때는 수시로 결항 여부 및 연착 시간 등을 확인하여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만약 항공편 일정으로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호텔 등에 연락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중국 입국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관할 공안기관을 방문하여 주숙등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 중국의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제39조와 제76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숙박시설(旅館) 이외의 기타 장소에서 거주할 경우, 입주 24시간 이내 본인 또는 숙박업체의 책임자가 거주지 관할 공안기관에 주숙등기를 해야 하며, 동 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경고 및 인민폐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 중국으로 입국 시 해관 신고 범위
 - 동물, 식물, 미생물, 생물적 물품, 인체조직, 혈액제품
 - 현지인일 경우, 외국에서 획득한 인민폐 현금 5,000위안 초과(5,000위안 포함)에 상당하는 물품
 - 비현지인일 경우, 중국 내에서 인민폐 현금 2,000위안에 상당하는 물품
 - 알코올 주류 1,500ml(알코올 도수 12도 이상), 담배 400개비, 서양 담배(시가) 100개비, 담뱃잎 500g 이상
 - 인민폐 현금 2만 위안 초과 또는 미화 5천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
 - 그 외 기타 해관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 중국에서 해외로 출국 시
 - 현지인일 경우, 인민폐 현금 5,000위안을 초과하는 사진기, 비디오카메라, 노트북 등 개인용품
 - 인민폐 현금 2만 위안 초과 또는 미화 5천 불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
 - 그 외 기타 해관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기타

가. 날씨

- 날씨정보사이트 : www.weather.com.cn
- 베이징(北京) : 1월 평균 -3.9°C , 7월 평균 26.5°C , 연평균 강수량 700mm

나. 교통정보

[버스]

- 노선 검색: www.mapbar.com
- 베이징(北京) : 北京公交网: www.bjbus.com
北京公交查询: beijing.8684.cn

[전철]

- 베이징(北京)에는 총 15개 노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map.baidu.com/subways/ 사이트를 통하여 노선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차]

- www.huochec.com.cn 사이트에서 운임 및 운행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선 항공]

- www.qunar.com 사이트에서 국내 최저항공권 및 운행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역 대중교통 이용 관련 정보 조회 <http://www.8684.cn/>

다. 기타

- 중국지역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이 허용 안됨

독일(Germany) : 유럽



상세여행경보



비지정

기본정보

섬머타임제: 3월 마지막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까지 섬머타임제를 실시함

현지연락처

가. 긴급연락처

- 경찰서 또는 비상전화 : 110
- 구급차 또는 소방서전화: 112
- 긴급의료기관 요청 : 31 00 31
- 차량 응급조치(ADAC) : 0180 222 22 22

나. 의료기관 연락처

- 독일에서는 특정 근로자들이 의무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보함과 법적의무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선택 가입할 수 있는 사보험 등 두 가지 종류의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 여행객들은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국내에서 여행자보험에 가입 하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나 소화제, 감기약 등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 시 비상약(소화제, 설사약, 두통약, 파스 등)을 준비하여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응급의사 요청방법 : 112 소방서에 연락, 거주하고 있는 구역의 의사에게 전화하면 의사 출동하여 진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은 구역마다 의사들이 대기 근무를 하고 있어 일반병원이 진료하지 않는 시간 또는 병원으로 이동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플 때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해주고 있으며, 진료가 힘든 상태의 환자는 구급차를 불러 가까운 대학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줍니다.

다. 대사관 연락처

-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Stülerstr. 10,
10787 Berlin Bundesrepublik Deutschland
 - 전화번호 : +49-(0) 30-260-650
 - 팩 스 : +49-(0)-26065-51
 - 이 메 일 : koremb-ge@mofa.go.kr
 - 홈페이지 : deu.mofa.go.kr
- 근무시간 : 월-금 09:00~12:30, 14:00~17:00
- 관할지역 : Berlin, Brandenburg, Sachsen-Anhalt, Sachsen,
Mecklenburg-Vorpommern, Thringen

사건·사고

가. 사건·사고 현황

- 독일연방정부는 알카에다 등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된 세력에 의한 테러위험 가능성에 대비해 독일 내 공항과 기차역 등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독일 내 체류 및 여행 중인 우리국민은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 기차역, 백화점, 영화관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주요 테러의 목표물인 점을 감안, 불필요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 다중이용시설 내에 방치된 가방이나 상자, 봉투 등이 발견될 경우 절대로 가까이 하거나 개봉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 테러조직의 목표물이 될 수 있는 특정 목적의 정치적 회합이나 반 이슬람 행사 참여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항, 기차역, 박람회장, 식당 및 호텔 등 여행객들이 자주 이용 하는 장소에서 귀중품이 보관되어 있어 보이는 손가방 또는 노트북 가방 등을 소매치기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호텔 내에서 아침식사 도중, 혹은 일반 식당이나 맥주집에서 본인 좌석에 걸어둔 가방이나 소지품을 절취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 체크인·체크아웃 시 잠시 옆에 내려둔 손가방이나 소지품을 소매치기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호텔 객실 내에서도 여권, 지갑 등 귀중품을 도난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외출하실 때에는 귀중품을 객실 내 금고 또는 호텔 측에 보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 기차 내에서 잠든 사이 또는 승객들이 돌아다니는 번잡한 틈을 이용하여 선반 위나 좌석 밑에 놓아 둔 소지품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가급적 소지품을 선반 위나 바닥에 놓지 마시고, 부득이하게 선반 위나 바닥에 놓는 경우에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내 보이는 곳에 소지품 또는 내비게이션 등을 두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절취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이나 기차역 또는 박람회장 등에서는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을 일부러 옷에 묻히거나, 질문 또는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주의를 끈 후 소지품을 빼앗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중에는 여권, 지갑 및 카메라 등 귀중품을 가방이 아니라 가급적 몸에 소지하시기 바라며, 타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간혹 유로화가 급하게 필요하다면서 고의로 접근하여 다량의 위조지폐(주로 달러)를 유리한 환율을 제시하면서 유로화로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여권후대업무
 - 해외체류기간 중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을 항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장기체류자 중 여권이 아닌 다른 신분증(학생증, 운전면허증 등)만을 소지한 채 국경을 통과하다가 검문에 의해 적발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연재해

- 최근 태풍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가 빈번한 것은 아니나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일기예보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유의해야할 지역

- 독일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안상태가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동독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극우주의자에 의한 유색인종 집단 구타사건이 발생하는 등 외국인 혐오증에 따른 범죄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동독지역 여행 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 납치, 폭행 등 강력범죄는 드문 편이지만 외국인을 상대로 한 절도 및 소매치기 등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외국인,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폭행 또는 강도 행위를 일삼는 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므로 야간에 혼자 다니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곳은 피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밤늦은 시간에 중앙역이나 국철역(S-Bahn) 부근은 조심해야 합니다.

현지문화

가. 일반문화

- 관공서, 식당, 상점 등에서 일처리가 한국에 비해 느리고 서비스도 좋지 않으므로 안내심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거리 보행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뛰거나 앞사람을 밀어서는 안 되며 떠들어서도 안 됩니다.
- 식당에서는 큰소리로 떠들지 말아야 하며, 식사할 경우 소리 내어 음식을 먹는 것,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는 것, 트림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행 시 서로 신체가 부딪히는 것을 매우 꺼려하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반드시 손수건이나 휴지로 입을 막아 주위에 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팁 문화

- 식당에서는 계산서에 나온 액수의 5~10%를 팁으로 주는 것이 보통이며, 카드결제 시 팁을 잔돈으로 따로 주거나 카드명세서의 서비스액란에 따로 기입하여 결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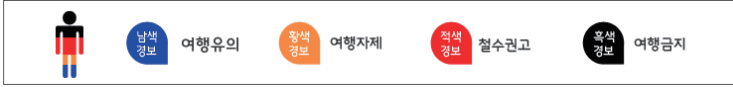
기타

- 베를린 리포트 : <http://www.berlinreport.com>
독일로 유학 온 학생들을 위한 정보 제공(유학생활, 관광지 정보 등) 커뮤니티입니다.

프랑스(France) : 유럽



상세여행경보



여행유의(일부): 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여행자제(일부): 파리 및 수도권 (일드프랑스), 알프마리팀 (니스)

기본정보

- **영업시간:**
 - 은행 : 월-금(09:00-12:00 및 14:00-16:00)
 - 백화점 및 상점 : 월-토(10:00-19:00)
* (하계 관광철 19:30, 20:00까지 영업 다수)
 - 식당 : 월-토(12:00-15:00 및 19:00-22:00)
- **전화코드:**
 - 국제전화코드 00
 - 파리 및 근교 지역코드 01
 - 휴대전화 코드 06 또는 07
- **주요공휴일 :** 신정(1.1), 부활절(4.1), 노동절(5.1), 승전기념일(5.8), 승천일(5.9), 성신강림일(5.20), 혁명기념일(7.14), 성모승천일(8.15), 만성절(11.1), 휴전기념일(11.11), 성탄절(12.25)

현지연락처

가. 긴급연락처

- 경찰 : 17
- 소방서 : 18
- 분실물 센터 : 0821 002 525
- 비자카드, 마스터 카드 분실신고 센터 : 0892 705 705
 - 수표 분실 시 수표를 발급한 해당은행에 개별 신고

나. 의료기관 연락처

- 종합병원
 - Hôpital HOTEL-DIEU : 1 place Parvis Notre Dame, 75004 Paris

(전화 : 01 4234 8234)

- Hopital EUROPEEN-GEORGES-POMPIDOU : 20 rue Leblanc, 75015 Paris
(전화 : 01 5609 2000)

- 앰بول런스 등 응급의료 서비스 : 국번 없이 15(SAMU)
- 응급의사 : 01 4707 7777
- 응급약국 : 01 4562 2041 (84 Avenue des Champs-Élysees, 75008 Paris)
- 원칙적으로 약품 구입 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하나, 감기약, 진통제 등 몇몇 기본 의약품은 처방전이 없어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의사의 진료를 위해서는 사전 예약이 필수적이며,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파리 소재 일반의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Dr. Francis Slattery : 32 Rue Vignon, 75008 Paris(전화 : 01 4742 0234)
 - Dr. Nancy Salzman : 36 Rue du Colisee, 75008 Paris
(전화 : 01 4563 1843)
 - Dr. Stephen Wilson : 54 Rue des Archives, 75004 Paris
(전화 : 01.4887,2110)

다. 대사관 연락처

□ 공관별 관할지

- 프랑스, 모나코

□ 주소 및 연락처

- 대사관 주소 : 125, rue de Grenelle, 75007 Paris, FRANCE
(지하철 13호선 Varenne 역)
- 전화 : +33-1 4753 0101(야간 및 주말 당직 +33 (0)6 8028 5396)
- 팩스 : +33 (0)1 4550 4028
- E-mail : con-fr@mofa.go.kr
- 홈페이지 : fra.mofa.go.kr

□ 근무시간 (근무시간 외 비상 연락처)

- 영사과 민원실 근무시간 : 월~금 09:30~16:30 (별도 점심시간 없음)
 - 비자접수 : 월~금 09:30~12:30
- 근무시간외 비상연락처 : +33 (0)6 8028 5396(당직전화)

사건·사고

가. 사건·사고 현황

★ 2015.11.13. 프랑스에서 테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내전, 테러(피랍)사건 등 동향

- 지난 2015 파리 언론사(Charlie Hebdo) 테러 사건 이후, 프랑스는 대테러 경보단계를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프랑스 군경찰 당국은 에펠탑 등 관광지과 기차, 지하철역 등에 대한 여행객 소개 및 검문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군경찰 당국은 에펠탑 등 관광지과 기차, 지하철역 등에 대한 여행객 소개 및 검문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테러 위협 관련 뉴스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출입을 가급적 삼가 하는 등 신변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나. 범죄현황 등 치안상태

- 프랑스는 강력범죄 등에 있어서는 유럽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관광객이 많아 관광지나 파리 외곽지역, 유흥가, 지하철 역 등에서 소매치기 및 절도, 강도 등의 피해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 특별히 프랑스 여행을 계획할 경우, 지갑 및 여권, 기타 귀중품 등의 도난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주요 사건·사고 유형

- 아동을 동반한 일가족 소매치기단의 소매치기 범치 및 여행객 대상 소매치기 범죄가 자주 발생합니다. 반드시 중요 물품이 든 가방은 몸 앞쪽으로 매고, 옷 주머니 등 접근이 용이한 곳에 지갑이나 휴대폰을 두지 않도록 하는 등 범죄 피해 예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 또, 2-3인이 1조가 되어 움직이는 오토바이 강도단은 다량의 현금이나 고가의 물품을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공항에서부터 추적하다가, 상시 정체구간인 파리 인근 Landy 지하철역에서 정지된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귀중품을 절도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탑승 시 귀중품은 항상 의자 밑이나 뒤 트렁크에 넣고, 무릎에 올려놓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차량이 정지 상태에 있지 않도록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두고 서행하여 공격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 경우, 신체 부상 등 더 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강도를 당하는 순간 저항하지 말고, 사고 후 즉시 경찰 신고와 아울러 신용카드 및 휴대폰 정지 요청 조치가 필요합니다.

- 그리고 차량통행이 비교적 한산한 주말 시간, 오페라 주변지역 도로 상에 주차한 자동차 문을 파손하고 가방 및 물품을 절도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차 시에는 가방 및 물품 등을 트렁크에 넣고 귀중품은 직접 소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사건·사고의 유형

□ 빈번한 교통사고 유형

- 도심에서는 일방통행과 교차로가 많고, 도로 곳곳에 오토바이가 질주하고 자전거도 많은 편이라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차량은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편이나, 보행자들은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로 인한 사고도 종종 발생하므로 운전 시 보행자와 오토바이, 자전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해

- 프랑스는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 경우가 많지 않으나, 최근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초고온 현상, 겨울철 폭설이나 폭우 등의 이상 현상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 유의해야할 지역

- 오페라, 에펠탑, 몽마르트 등 주요 관광지, 지하철, 기차역(북역, 동역 등) 주변, 샤를 드 골 공항에서 파리 중심까지의 RER(교외급행전철)선, 술집이 많은 피갈 유흥가 지역 등에는 항상 소매치기가 많으므로 소지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지문화

가. 종교관련

- 종교 선택은 자유이며, 정해진 장소에서 거행되는 종교의식은 허용됩니다.
- 그러나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및 관계자들이 종교색을 나타내는 의상(이슬람 히잡 등) 또는 눈에 심하게 뛰는 것(십자가 목걸이 등)을 착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또한, 공공장소에서의 부르카(이슬람 여성이 착용하는 안면 가리개 의상) 착용 금지 법안이 최근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나. 팁 문화

- 식당에서는 계산서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팁을 줄 필요는 없으나 통상 계산 후 약간의 잔돈을 남겨놓는 것이 관행입니다.
- 호텔에서는 통상 포터에게 짐 1개당 1유로, 룸메이드는 2유로의 팁을 줍니다.

다. 건물 층 수 차이

- 우리식의 1층은 프랑스에서 0층으로 표기되며 RDC 또는 RC(Rez-de-Chaussee) 등으로 표기합니다.

기타

가. 교통정보

□ 대중교통

- 파리의 대중교통은 지하철, 버스, Tram(전차), RER(교외급행전철) 등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RATP사에서 파리 시내 대중교통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관계로 티켓은 파리 시내에서 각 교통수단간 상호 호환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RER을 탑승하여 파리 외곽으로 이동하는 경우(예: 디즈니랜드, 베르사이유궁, 샤를 드골 공항), 상기 파리 시내 대중교통 티켓으로는 탑승할 수 없으므로 해당 목적지 해당 티켓을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다.

※ 대중교통(요금 등 종합안내) 관련 홈페이지 : www.ratp.fr

- 대중교통 탑승 시 수시로 검표원이 표를 검사하므로 하차 시까지 표를 지참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무임승차 시 고객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택시는 공항, 기차역, 유명 관광지에 위치한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잡을 수 있으며, 시내에서 거수로 택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 택시 운전사 옆자리(조수석)에는 손님을 태우지 않습니다.
- 철도는 국영철도회사인 SNCF가 운영하고 있으며, 파리 시내 주요 기차역으로는 생-라자르역, 북역, 동역, 리용역, 오스테리츠역, 몽파르나스역 등이 있습니다. 행선지에 따라 역이 달라지므로 예약 시 출발역 및 도착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도로교통

- 시내의 경우, 일반통행 길이 많으며, 주요도로 차량이 우선인 한국과는 달리, 간선도로에서 진입하는 우측 차량이 우선이므로 운전 시 주의가 요망됩니다.
- 전반적으로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단, 도심에서는 도로가 비좁고 교통량이 많아 속도를 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주차시설이 부족한 편입니다.

나. 기타

□ 출입국

- 샤를 드골 및 오를리 공항을 통해 처음 유럽을 입국할 때에는 추후에 불법체류 의혹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입국 스탬프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심사관이 스탬프를 찍지 않을 경우, 스탬프 날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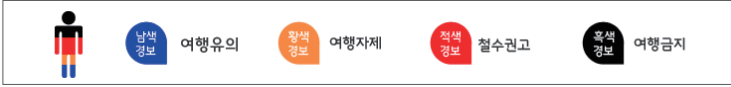
□ 전력 현황

- 220-240V, 50HZ

스페인(Spain) : 유럽



상세여행정보



여행유의(일부):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포함 전지역

현지연락처

가. 긴급연락처

- 통합 긴급 전화 : 112 (상담원이 발생 사안별로 해당 기관에 연결하여 줍니다)
- 응급의료 : 092
- 범죄신고 : 국립경찰(091), 민경대(062), 자치경찰(092)
- 전화번호 안내 : 11811

나. 대사관연락처

- 주소 : Calle Gonzalez Amigo 15, 28033, Madrid, Spain
- 홈페이지 : www.mofa.go.kr/spain
- 대표 이메일 : embspain.adm@mofa.go.kr
- 대표번호 : (32) 91-353-2000
- 근무시간(민원접수) : 09:00-18:00(09:00-14:00)
- 긴급연락처 : (34) 648-924-695

사건·사고

가. 사건·사고 현황

- 교통 시설에서의 절도: 공항, 기차역 및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등 종류를 불문하고 교통 시설에서 절도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짐을 휴대하고 교통편을 확인하거나 출발 시간을 기다리며 로비나 커피숍에서 대기하는 중이거나 환전을 하는 사이에 손가방을 주로 노립니다. 특히 동전을 떨어뜨리거나 말을 걸어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다른 공범이 물건을 들고 달아나는 수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 의류매장 및 식당 내 절도: Zara 등 시내 중심가 의류 매장에서 옷을 고르는 사이, 아이스크림 가게,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사이에 의자 옆에 놓아 둔 소지품이나 의자에 걸쳐 두었던 상의에서 지갑을 훔쳐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 경찰의 불심검문 사칭 절도: 사복 정장 차림의 범인들이 마약 범죄와 관련하여 조사

나. 자연재해

- 집중 호우: 11월 이후 겨울철에 갈리시아 등 북부 및 안달루시아 등 남부 지역에 집중 호우가 발생하여 도심이 잠기거나 주요 도로가 통제되는 수해가 발생합니다.
- 폭염 및 산불 재해: 세비아 등 남부 지방은 7·8월에 45도가 넘는 폭염으로 대낮에 관광을 하는 경우 일사병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온 건조한 여름철에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겨울철 강설 및 한파: 북부 및 중부 메세타 지역은 겨울철 한파로 폭설이 내리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지진: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으나 2011.5.11. 남부 무르시아주 로르카 시에서 강도 5.2의 지진이 발생하여 8명이 사망하고 167명이 부상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스페인 반도 중 지각 활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 일반문화

- 스페인 사람들은 초면에도 서로 볼을 2번 맞대고 인사를 나누는 관습이 있으나 악수로 대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어린이에 대한 신체 접촉은 아동 성범죄로 오인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 현지 카나리아 주민은 대체로 친절한 편이며, 외국인과 외국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수용태도를 보입니다.

라. 종교관련

- 스페인은 가톨릭 전통의 국가로 도시마다 대성당이 있습니다. 입장 시에는 복장에 유의하는 것이 좋고 아주 짧은 반바지, 치마, 민소매 T 셔츠 등을 착용한 경우에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팁 문화

- 식당에서 식사대의 5~10% 정도의 팁을 주는 것이 보통이나 저렴한 대중 식당은 팁을 주지 않거나 거스름돈을 놓아둡니다.
- 택시의 경우 팁은 없으나 1유로 미만의 거스름돈을 팁으로 주기도 합니다.



8.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 출처 :



해외여행 중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영사콜센터 - 24시간 연중무휴



- 국내 02) 3210-0404(유료)
- 해외 국가별 접속번호+822-3210-0404(유료), 국가별 접속번호 +800-2100-0404(무료)
- 상담내용 우리국민 해외 사건·사고 접수,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안내, 가까운 재외공관 연락처 안내 등 전반적인 영사민원 상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활용

- 여행경보제도, 해외여행자등록제, 동행, 위기상황별 대처매뉴얼, 사고현장 촬영 및 녹취 기능 등 안내

도난/분실

-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여권 분실



- 여권 분실 시, 분실 발견 즉시, 가까운 현지 경찰서를 찾아가 여권 분실 증명서를 만듭니다. 재외공관에 분실 증명서, 사진 2장(여권용 컬러사진), 여권번호, 여권발행일 등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급히 귀국해야 할 경우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 여권 분실의 경우를 대비해 여행 전 여권을 복사해 두거나, 여권번호, 발행 연월일, 여행지 우리 공관 주소 및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단,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여권이 위·변조되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바랍니다.

현금 및 수표 분실



- 여행경비를 분실·도난 당한 경우,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재외공관 혹은 영사콜센터 문의)
- 여행자 수표를 분실한 경우, 경찰서에 바로 신고한 후 분실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여권과 여행자수표 구입 영수증을 가지고 수표 발행은행의 지점에 가서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면, 여행자 수표를 재발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T/C의 고유번호, 종류, 구입일, 은행점명, 서명을 알려줘야 합니다.
 - ※ 수표의 상하단 모두에 사인한 경우, 전혀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 수표의 번호를 모르는 경우, 분실 시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항공권 분실



- 항공권을 분실한 경우, 해당 항공사의 현지 사무실에 신고하고, 항공권 번호를 알려줍니다.
 - ※ 분실에 대비해 항공권 번호가 찍혀 있는 부분을 미리 복사해 두고, 구입한 여행사의 연락처도 메모해둡니다.

수하물 분실



- 수하물을 분실한 경우, 화물인수증(Claim Tag)을 해당 항공사 직원에게 제시하고, 분실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공항에서 짐을 찾을 수 없게 되면,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합니다.
 - ※ 현지에서 여행 중에 물품을 분실한 경우, 현지 경찰서에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신고를 하고,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경우 현지 경찰서로부터 도난신고서를 발급받은 뒤, 귀국 후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합니다.



중국에서 여권분실 도난 사건이 많아, 중국 공안당국은 우리 공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여행증명서가 있더라도, 공안당국이 발행한 여권분실증명서가 있어야 출국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①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먼저 관할 파출소에 신고하여 분실증명서를 발급받고 중국 내 우리 관할 공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분실신고(사진3매 지참)를 하여야 한다.
- ② 공관에서 발급하는 '분실여권 말소증명' 과 파출소 발행의 '분실증명서' 와 호텔 등 외국인 합법 거주지 등에서 발급하는 '숙박증명(주숙등기표)' 을 첨부하여, 분실지역 관할 공안국 외국인 출입경 관리처에 가서 분실증명서를 발급받는다.
- ③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분실증명서를 가지고 공관을 방문해 단수여권을 발급받는다.(발급수수료: 인민폐 120위엔)
- ④ 공안국 외국인 출입경 관리처에 가서 단수여권에 출국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여행 경비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에 관해 영사콜센터에 문의합니다.



부당한 체포 및 구금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현지 사법당국의 절차에 따릅니다.
- 우리 공관에 구금 사실을 알리도록, 현지 사법당국에 요청합니다.
※ 해외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나라의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
와 사건 처리가 진행됩니다. 재외공관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현지 사
법당국에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직접 해당사건을 담당할 법적 권
한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 언어가 능통하지 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통역 지원이 가능한
지 문의합니다.
- 본인이 모르는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
지 못할 경우, 함부로 서명하지 마십시오.
- 영사와의 면담 시 향후 진행될 사법절차, 현지 법체계에 대한 일
반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가족과 연락을 하고 싶을 경우, 사법당국 또는 담당영사에
게 협조를 구합니다.
- 체포·구금 당시 부당한 대우, 가혹 행위, 반인권적인 사항이 있었
을 경우, 영사와의 면담 시 관련 사실을 알려 관계 당국에 시정
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변호사비, 보석, 소송비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속해외
송금 지원제도를 활용합니다.
-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고 싶을 경우,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인질/납치



인질/납치

- 필리핀, 과테말라, 중국 등 인질 및 납치가 빈번한 국가를 여행할
때에는 치안 불안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여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 납치가 되어 인질이 된 경우, 자제력을 잃지 말고 납치범과 대화
를 지속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 눈이 가려지면 주변의 소리, 냄새, 범인의 역양, 이동시 도로상태
등 특징을 기억하도록 노력하십시오.
- 납치범을 자극하는 언행은 삼가고, 몸값요구를 위한 서한이나 음
성녹음을 원할 경우 응하도록 하십시오.
- 버스나 비행기 탑승 중 인질이 된 경우, 순순히 납치범의 지시에
따르고 선물리 범인과 대적하려 들지 마십시오. 납치범과 대적할
경우,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인질들의 생명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통역 선임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 ※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기 바랍니다.(현지 경찰서 번호 안내 및 사건장소 촬영과 녹취기능 등 포함)
- 사고 후 지나치게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분명하게 행동하십시오.
- 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하고, 사고 현장 변경에 대비해 현장을 사진 촬영합니다.
- 장기 입원하게 될 경우, 국내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인시켜 주고, 직접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공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안이 위급하여 국내 가족이 즉시 현지로 와야 하는 경우, 긴급 여권 발급 및 비자 관련 협조를 구합니다.
- 급작스러운 사고로 의료비 등 긴급 경비가 필요할 경우, 해외공관이나 영사콜센터를 통해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그 나라의 일반적인 법제도 및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현지 또는 통역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자연재해

-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본인의 소재지 및 여행 동행자의 정보를 남기고, 공관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현장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크게 진동이 오는 시간은 보통 1~2분 정도입니다. 성급하게 외부로 빠져나갈 경우, 유리창이나 간판·담벼락 등이 무너져 외상을 입을 수 있으니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서 자세를 낮추고 머리 등 신체 주요부위를 보호합니다. 지진 중에는 엘리베이터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단을 이용하시고, 엘리베이터 이용 중에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는 가까운 층을 눌러 대피합니다.
- 해일(쓰나미)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높은 지대로 이동합니다. 이때, 목조건물로 대피할 경우 급류에 쓸려갈 수 있으므로 가능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이동해야 합니다.
- 태풍·호우시 큰 나무를 피하고, 고압선 가로등 등을 피해 감전의 위험을 줄입니다.

- 자연재해 발생시, TV·라디오 등을 켜두어 중앙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위기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유언비어에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현지 관계당국에 해당 건을 신고하고, 우리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도 연락을 취하여 우리 국민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시위 및 전쟁



대규모 시위 및 전쟁

- 군중이 몰린 곳에 함부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경우, 특정 시위대를 대표하는 색상의 옷을 입거나 시위에 참여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니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위대의 감정이 고조되어 무력충돌(총기난사, 폭력 등)로 이어질 가능성을 대비해 긴급 출국하는 편이 좋습니다.
- 당장 출국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사콜센터 혹은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 여행자의 소재와 연락처를 상세히 알려 비상시 정부와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긴급하게 귀국 또는 제3국으로 이동해야하는 경우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서는 비자발급, 여행증명서 발급 등의 출국절차를 지원해드립니다.
- 현지 관계당국에 해당 건을 신고하고, 우리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도 연락을 취하여 우리 국민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테러/폭발



테러/폭발

- 재외공관에서 사건 관할 경찰서의 연락처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받습니다.
- 총기에 의한 습격일 때는 자세를 낮추어 적당한 곳에 은신하고 경찰이나 경비요원의 대응사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 폭발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바닥에 엎드려 신체를 보호합니다. 엎드릴 때는 양팔과 팔꿈치를 갈비뼈에 붙여 폐·심장·가슴 등을 보호하고 손으로 귀와 머리를 덮어 목 뒷덜미, 귀, 두개골을 보호합니다. 통상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2차 폭발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미리 일어나서는 안되며 이동시에는 낮게 엎드린 자세로 이동합니다.

- 화학테러의 경우 눈물과 경련, 피부가 화끈거리거나 호흡곤란, 균형감각 상실 등의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이럴 땐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을 멈춘 채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신속히 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 병원균이나 생물학적 물질에 의한 테러의 경우 호흡기, 피부에 난 상처, 음식물 복용 등을 통해 감염되고 전염병을 발생시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고열, 복통, 설사, 땀, 인후염, 피부발진, 안구 출혈, 무기력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근에 의심물질 누출되었을 경우 손수건을 여러 겹으로 접어서 코와 입을 가린 채 신속히 현장에서 대피하고 물과 비누로 노출도니 피부를 조심스럽게 씻고 관계당국에 신고하여 특이증상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독가스 등 생화학 가스가 살포된 경우,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호흡을 중지한 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속히 현장을 이탈합니다.
- 방사능 테러는 폭발을 감지해도 특수 장비가 없다면 방사능 물질로 인한 오염이 발생했는지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핵 폭발지역에 있을 경우, 비상대피소로 대피하거나, 실내에 있을 경우 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빈틈없이 닫아두어야 합니다.
- 현지 경찰서에 해당 건을 신고하고, 우리 재외공관(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에도 연락을 취하여 우리 국민 안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약소지 및 운반



마약소지 및 운반

- 마약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마약범죄를 중범죄로 다루고 있고, 소지 사실만으로도 사형에 처하는 나라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중국의 경우, 헤로인 50g 또는 아편 1kg을 제조, 판매, 운반, 소지 시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중국 형법 제347조)
- 귀하가 운반한 가방에서 마약이 발견되었을 경우, 외국 수사당국은 귀하가 약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마약사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억울하게 일을 당하지 않도록 본인 스스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우리공관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이 자신의 수하물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수하물이 단단하게 잠겼는지 확인합니다.
- 공항이나 호텔 프론트에서 자신의 수하물을 항상 가까이에 둡니다.
- 자신도 모르는 사람과 도보나 히치하이킹을 통해 국경을 같이 넘지 마십시오.

-
- 복용하는 약이 있는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항상 소지해 불필요한 입국 심사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 아이들의 장난감 등을 통해 마약이 운반되기도 하므로, 모르는 사람에게서 선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

여행중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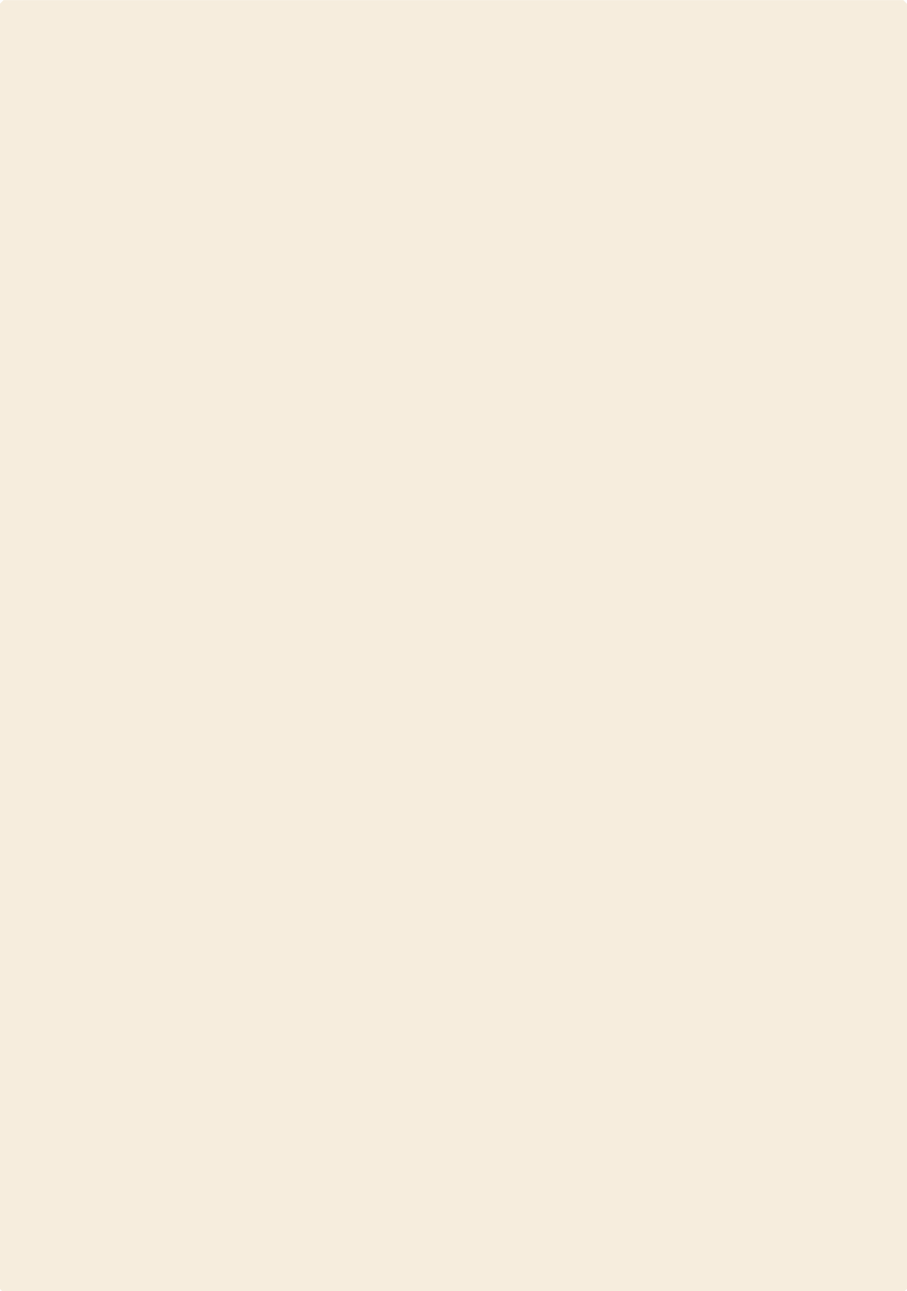


여행중 사망

- 여행 도중 동행인이 사망한 경우, 병원에서는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경찰로부터는 검사진단서 및 경찰 사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사망 시, 재외공관에 [사망자의 성명, 사망일시, 사망 장소 및 유해안치장소, 사망원인, 사망자의 한국주소, 본적, 유족의 성명과 주소, 사망자의 여권번호 및 발급일]을 신고합니다. 여행 주관 회사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성명, 사망일시, 사망 장소, 사망원인, 유해안치장소, 가족에 대한 연락, 보험 수속 의뢰 상황]을 보고합니다.
-

출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http://www.0404.go.kr>)

MEMO



MEMO

